

금주의 기도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 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7월 13일 (토) 제 17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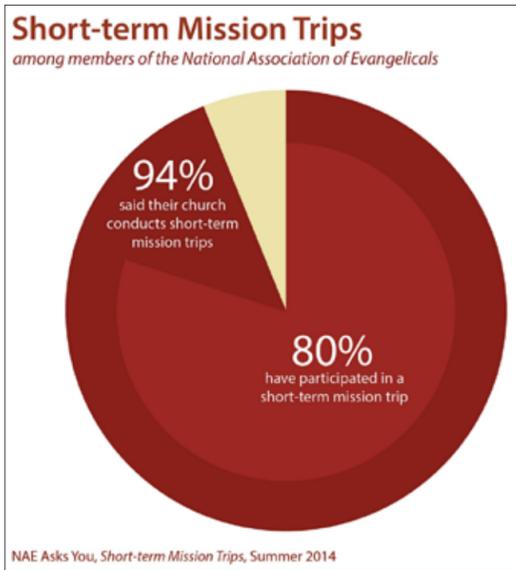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관계” 맺는 단기선교 해야 한다!

목적에 따른 용어혼란, 통계부재 원인 점검과 대안 제시

여름방학 시작과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으면서 단기선교도 역시 시작됐다. 2014년 미국 교회 복음주의연합단체(NAE)가 소속 교회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무려 94%라는 압도적 숫자가 단기선교를 떠난 만큼, 단기선교는 대세 중의 대세다. 그러나 구태여 수치로 표현해서 300만 명(?) 이상, 떠나는 단기선교보다, 소외되는 재정이나 노력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많다는 지적도 많다. 먼저 정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단기선교를 떠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과연 단기선교를 통해 장기 선교사 배출이나 선교지에서 관계를 형성해 실제로 복음 전파가 이뤄졌는지

를 파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기에, 단기선교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개 교회의 경우, 담임 목회자나 선교부서의 단기선교 목적에 따라 '전도', '자신의 비전 발견', '봉사' 그리고 '교인 훈련' 등등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단기선교의 목적 자체도 흔들리고 있다. 물론 확고한 선교관으로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체계적으로 단기선교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선교단체나 교회들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인원과 재정 동원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에 그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남부주 지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UC)을 중심으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지구촌에 20-40 명 정도의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선교단체가 있다. 대략 7-8개 국가들을 선정해 한 달 정도 해당 선교지에서 현지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체험을 경험하게 한다. 선교 경비 역시 펀드레이징이나 도네이션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선배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일정을 보낸다. 해당 국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빈약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해당 선교회의 스태프들은 “수년 동안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지만 현지 선교지에 헌신하는 장기 선교사는 불과 손가락을 꼽을 정도”라고, 단기선교를 통한 장기 선교사 육성과 배출에 미흡하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 선교단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인교회, 선교단체, 대학 등등 파종에 비해

거둬지는 결실은 아직은 미약하기만 하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에서는 선교를 빙자한 ‘종교적 투어리즘’ 비판을 의식해서, 단기선교를 ‘비전 트립(vision trip)’이란 용어로 2000년 후반이후 대체 사용하고 있다. 단기선교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현지 방문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는 조그마한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서 나온 용어다. 선교학에서는 비전 트립의 목표를 타문화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발견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곧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비전 트립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사역자의 탐색, 타문

화 속에서의 팀워크 훈련, 현지 선교사역에 대한 이해 증진, 현지 선교사와의 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단기선교는 보통 짧은 기간에 진행되더라도 복음을 심는 직간접적인 사역을 실행한다. 단기선교의 중요한 방향은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것에 있으며, 동시에 단기선교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장기선교에 헌신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단기선교 대신 ‘단기봉사’라는 용어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선교현장에서 현지인을 직접적으로 개종시키는 것보다는 그들의 근경에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기선교의 목적이 비전 트립으로 그리고 단기 봉사로 같이 동시에 사용되다보니, 결국 한 지붕아래 세 가족이 모여 사는 형태로 단기선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지 주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세미나에서 김토마스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본지 주최 세미나 7월 9일, 강사 김토마스 목사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김성국 목사)이 주최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세미나가 지난 8일 저녁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 앞서 본지는 1733호부터 4회에 걸쳐 강사 김토마스(만규) 목사의 원고를 게재했다. 이날 강의는 그 내용이 근거했지만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30여분은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미나는 본지 운영위원장 정성호 장로(퀸즈장로교회) 사회로 남형욱 장로 기도후 김성국 목사가 강사를 소개하고 곧바로 강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토마스 목사는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며 “말로 사람을 살리

는데 이는 복음을 선포하는 말”이라고 강조하고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에덴의 언어를 회복하자’는 음성클리닉을 강조하며 Method of Voice Production, Sands 이론, Iceberg 이론, 벨칸토발성법에 따른 실습 등의 순서로 강의했다. 말은 종재의 집으로 의사소통 기능 그 이상을 갖고 있다며, 체계적인 언어의 조건은 가장 적은 에너지로 잘 전달하는 언어라고 말하고 그러나 한글말은 1930년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정리하면서(주기철→주기철) 힘든 발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1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인터뷰 윤임상 교수

16면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칭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음악회

2019년 7월 16일 (화) 오후 8시

WALT DISNEY CONCERT HALL

(111 S. GRAND AVE., LA, CA 90012)

축제의 무대 본교 교수진들의 연주를 통해 30주년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	감사의 무대 본교를 통해 발돋움 된 뛰어난 지원자들과 연주자들이 참여, 예술적 아름다움을 표현.	희망의 무대 개교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창작된 칸타타 “요셉”을 통해 이 주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연주회의 하이라이트!
--	---	--

Music Director Im sang Yoon	Professor Esther Yune	Professor Somyung Hwang	Professor Jeff Colella	Conductor Vakh Jongwhi
Conductor Carlene Kim	Conductor Young Jae Kim	Conductor Jungkeun Oh	Conductor Julie Jihyun Cho	Soprano Sunmi Shin
Tenor Wiyoung Oh	Baritone Sangkeun Chang	Composer YoungSuk Chac		

발행인 칼럼

소리와 음성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며칠 전 본 신문사 주최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한국의 “그리스도중심 교회(Christ Centered Mission)” 담임이신 김토마스 목사의 강의를 생소한 내용과 유익한 정보, 그리고 실제적 연습까지 담은 총천연색 강의였다. 강의 가운데 소리(sound)와 음성(voice)이 다른 것임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소리는 성대(聲帶)에서 나오지만 음성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입에서 나온다고 한다. 다른 동물들은 소리를 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만이 음성을 내며 말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소리의 세계에서 사는 존재일 수 없다. 세상에 얼마나 잡다한 소리가 많은가. 음성의 세계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음성이 주어진 우선적 이유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말을 통해 참된 것을 전하며 사람끼리의 품위 있게 대화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하지 않은가. ‘개소리’라는 말은 들어 보았지만 ‘개음성’이라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다면 소리를 넘어서는 음성의 세계를 사모함이 마땅하다.

현실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예전에서 사람이 타락할 때 사람의 말도 타락했다. 바벨탑 사건 이후 보인 언어(言語)의 혼잡(混雜)은 인류의 비극, 그 자체이다.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야 할 말이 불평과 싸움을 일으키는 도구로 전락했다. 생각해보라.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느 부모가 1000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자녀에게 사주었다고 하자. 자녀가 그 고가(高價)의 악기로 하구한날 뽀뽀거리는 이상한 소리만 낸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어이없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천상(天上)의 악기인 보배로운 목소리로 말다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픔은 어떠시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12:37) 잠언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12:18)는 말씀도 있다.

우리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날의 강의를 먼저 말을 아름답게 함으로 내면을 정화(淨化)시킬 수 있다고도 하였다. “내면(內面)이 수양(修養)될 때까지 나는 한 마디로 안 하리라”라고 지나친 결심은 하지 말자.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에겐 그 침묵의 시간이 꽤 길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예쁜 말을 시작하자. 긍정적인 언어가 습관이 되게 하자. 멋진 소리를 그치고 감동과 경이(驚異)로 가득 찬 음성을 쏟아내자.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하나님과 대화부터 해보자. 자기의 언어가 자기의 존재를 담지(擔持)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필경(畢竟) 그 사람의 언어에 그의 영(spirit)이 담겨 있다는 주장은 단순한 억측(臆測)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언어생활에 혁명이 필요하다. 그 혁명은 다른 아닌 인류가 잃었던 음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자신이 달라질 것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놀랄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짐승들도 그렇게 사는, 소리의 세계에서 살지 말고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음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득음(得音)의 경지(境地)에 이르자. 그리고 음성과 함께 훨훨 날아 보자. 자 이제 다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배에 힘을 주고 성대를 거쳐 뿜어내는 진정한 음성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진짜 사람이 되자.

대중문화 통해 ‘좋은 결혼이야기’ 들려준다!

CT, TV·영화에서 소외·외면 받는 주제...크리스천들이 다시 만들어가기 소개

영화 사학자인 지닌 베신저는 “영화가 보여주는 결혼의 역사”에서 지난 40년간 영화를 통해 나타난 결혼 트렌드를 보여준다. 바로 결혼생활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다. 결혼생활의 극적인 흥미를 상상할 수 없다는 작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할리우드는 오직 결혼식에 대한 영화만을 거듭해 만들고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섹스를 하고 아이를 갖고 동거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아무도 결혼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면서 영화는 결혼식만을 부각시켜 결혼식이 마치 결혼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듯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 ‘빅 웨딩’만 봐도 장식이며 술, 결혼예복은 있지만 지루한 결혼문제 따위에 신경 쓸 일은 없다.”

‘마블 코믹스’의 전 편집자는 만화에서 결혼을 다루지 않으려는 것은 결혼이 좋은 이야기를 영감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로이스 레인과 결혼한 슈퍼맨에게 무슨 흥미가 생길까? 별로 없는 것 같다. ‘DC 코믹스’는 슈퍼맨의 일대기에서 1996년에 처러진 결혼식을 삭제하고 슈퍼영웅에 걸맞게 독신남으로 바꿔놓았다.

결국 할리우드를 선두로 결혼, 특히 전통적인 결혼은 지루한 소

재라는 인식이 영화와 TV 모두에서 더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일상적인 시각은 사사 시대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것이 개방적이든, 자유롭든,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다.

W. 데이비드 O. 테일러(W. David O. Taylor, 풀러신학교 ‘예배·신학·예술을 위한 브랜 센터’의 프로그램 책임자) 목사는 단지 영화와 TV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결혼을 거부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영화와 TV의 영향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결혼이 불가능하거나 옳지 못하다고 쉽게 치부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일에 예술적 상상력이 얼마나 강력한 한지를 크리스천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즉 ‘좋은’ 결혼을 봐야 좋은 ‘결혼’을 하고 싶어지는 법이기에, TV나 영화에서 결혼 ‘이야기’를 되찾기 위한 크리스천들의 기도와 사역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Where Are All the Good Stories about Marriage? And how Christians in the arts can bring them back).

2012년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커뮤니케이션 교수인 에드워드 사이야파는 TV의 영향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이야기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TV의 영향으로 고약한 고정편견이 갑자기 성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눈덩이가 불어날듯 커져갑니다.”

TV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효과적이다. 입소스 미디어의 사회 여론조사에서 동성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호감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 경우에 따라 관객들은 게이와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한때 심각한 문제로

려 순진한 생각이다. “대화를 이끄는 것, 미디어의 서사를 구축하는 것, 문화를 바꾸는 것”은 아마도 보수주의자

항을 주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은 좋은 이야기의 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보통의 미국인이 거의 매달 TV나 영화 앞에 앉아서 200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동성애자들이 옳았다. 세속적인 유대인이나 불가지론자, 또는 진보적인 크리스천처럼, 그러나 보수적인 크리스천과는 다르게, TV나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로맨스와 결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형성할 것

할리우드, 특히 전통적 결혼은 지루한 소재라는 인식 만연 영화와 TV 영향 커...작가, 프로듀서, 제작자 기도지원 필요

TV의 영향이었다고 대답한 1/5에 달하는 미국인들은 사이야파 교수의 이 연구 결과에서 많은 것을 수긍했을 것이다.

동성에 커플이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모던 패밀리”같은 드라마는 사이야파 교수가 카테고리 작업(Category Work)이라고 부르는 일을 해냈다. 이 드라마에서는 (화려하고 번듯이 심한 남자동성애자의 등장 같은) 범주적 고정관념을 보여준다. 여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드라마의 경우에는 신뢰가 가는 동성애자의 등장을 더해 좀 더 복잡한 카테고리를 만든다.

“모던 패밀리”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다. 공감할 수 있는 동성애자를 출연시켜 관객들이 동성애에 대한 거북한 감정을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특히, 젊은 관객들에게는 평범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졌던 2013년 7월, 한 크리스천 논객은 미국인들이 복잡한 언어적 논의를 다룰 수 없다면 그보다 쉬운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쉬운 방식이라는 것은 예술을 의미한다.

상상이라는 것을 최악의 경우라고 해봐야 거슬리는 정도이며 기껏해야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형식으로 여기는 것이 크리스천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이 오히려

들의 열정적인 슬로건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명예훼손에 맞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연합’이 공식화하고 있는 임무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문화를 만들고, 결국에는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같은 소수 성애자들은 미국의 변화에 영

이라고 동성애자들은 생각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윤리및공공정책센터(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의 선임 연구원인 피터 웨너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저널리스트인 로드 드레어가 말했던 것처럼, 대중문화의 밑바닥에 정치사상이 존재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휴스턴한인교회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청빙 초교파 교회로써 지난 48년 동안 휴스턴 한인지역 사회에서 보수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에 힘써온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8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1. 정규목사교육과정(M. Div.)을 이수하신 분
2. 55세 미만
3. 미시민권자, 영주권자이시거나 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가족 소개서
2. 목회비전 및 신앙 고백서 (3 Page 미만)
3. 최근 설교 2회분 동영상 또는 CD/DVD/USB
4. 목회안수 증명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6. 추천서(2인) 및 조회처 List (최소 3곳 기재)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심사 후, 청빙 후보자에게 개별통지 드립니다 (전화문의의 사절)
-봉투 결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재중”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인 EM 전도사 지원희망자는 이력서를 하기 이메일 주소로 송부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9년 9월 30일

제출처 1. 우편: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KCCH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2. 이메일: kcch2019@gmail.com

담임목사 청빙

KAPC 동남부 노회 소속 뎀피스제일장로교회(The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emphis)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소재한 27년 된 교회로 자체 성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대 목사님의 은퇴로 신실하게 목회하실 2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담임 또는 부 교역자로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분
소명과 사명 의식이 투철하신 분
신체 건강하며 가족이 화목하신 분
1965년 이후 출생하신 분
이중 언어 사역이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대학 및 신학 대학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현 노회 소속 증명서
사모님 신앙 고백서
목회 철학
최근 설교 동영상 1편 또는 설교 동영상 확인 링크 주소 추천인 2명의 봉인추천서 또는 연락처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 마감 : 2019년 8월 31일
우편 주소 : 5740 Pleasant View Rd.
Memphis, TN 38134
온라인 주소 : atmc1348@gmail.com

뎀피스제일장로교회 청빙위원회

The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emphis

“관계” 맺는 단기선교 해야 한다!

(1면에서 계속) 동일한 맥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파송되는지를 가능할 길이 없다.

단기선교 전문단체(www.shorttermmissions.com)는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할 수 없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너무나 많이 확산되었다: 1000개 이상의 미국 선교단체, 수만 개의 교회와 1,000개가 넘는 기독교 대학, 신학교, 고등학교에서 단기 선교팀을 보낸다. 파견단체, 참가자, 목적지 및 선교 모델 간의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여행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2004년 연구(Robert Wuthnow)는 최상의 결과를 말해준다. 청소년 그룹

과 교회들을 포함해서 240만 명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수치도 유사할 정도로 보고 있다.

△국내 여행 요인: 매년 여름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300개 그룹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단기선교 참가자 중 약 35%가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 서치 역시 실시한 2008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는 미국 내에서 선교사역을 했다고 응답했다.

△단기선교를 보내는 팀들의 다양성: 단기 선교사의 약 60%가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들 지역으로 직접 파송됐다. 선교단체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교회 위주로 보내다보니, 나중에 선교 결과를 도출한 자료가

없다.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속 그룹이나 조직에서 별다른 국제 및 국내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여행을 단기선교 영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마찬가지로 단기선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다.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세계관과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 그리고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관계성이 있다. 따라서 3년 정도 한 지역을 집중해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안이 제기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역과 성취가 아니라 관계성이기 때문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

에게 마음을 열기는 어렵지만 다시 만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쉽게 열리는 것, 즉 선교는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단기 선교사역은 그 나름대로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장기 선교사역과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장기 선교사역의 계획과 비전 아래에서 단기 선교사역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교사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교회의 전체적인 선교 정책이나 방향에 맞추는 것이 필수다. 여기 저기에서의 소모적이고 일시적인 각개전투가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가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팀들을 파송하고 몇 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선교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원들을 아끼고 선용하는 것이다.

대중문화 통해 ‘좋은 결혼이야기’ 들려준다!

(2면에서 계속)

나의 본래 주장의 뉘앙스를 좀 더 정확히 하자면, 모든 보수 크리스천들이 예술적 상상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보수 크리스천들이 그것도 아주 사려 깊게 심각성을 이해해 왔지만, 또한 너무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예술적 상상을 충분히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수십 년 간 예술과 연예산업 내부에 크리스천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결국 열어준 흑독한 예술작가 문화와 관련기관, 예술가 후원문화, 예술인 공동체들에 대한 투자에 소홀했다는 이야기다.

크리스천들은 “대중의 광장”(public square)에서 예술 문화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결혼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미미해 어느 누구의 관심도 얻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청춘 연애사 70쇼’와 ‘미녀와 백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TV 드라마를 썼던 몇몇 크리스천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심지어 10년 전에 비해 오늘날 영화제작 현장에는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수이고 무언가 변화를 일궈내기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고 한다. 한 작가는 “진짜 문제는 작가들

자들(방송국과 영화사)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거나 그들이 전파를 타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문제”라고 말한다.

음모이론에 가담할 필요는 없지만 남가주대학교(USC)의 피터 스타크 프로듀싱 프로그램에서 한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할리우드에서는 전통적인 결혼을 탐구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데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독신 남녀의 이야기가 극적으로 흥미진진할 때는 더욱 그렇다.

또 다른 작가는 “자기가 모르는 것, 곧 좋은 결혼에 대해서는 쓴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전체 결혼의 60%가 이혼으로 끝나는 마당에, 사실이라고 보기에 너무 뾰뚱 같은 현실을 이야기로 쓴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가가 플랫폼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해도 수백 명이 참여해 1회 분량의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존재감을 소금에 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장편영화는 말할 것

도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결혼의 뉘앙스를 풍기는 장면이 포함된 이야기의 성공 가능성은 1%밖에 안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나 한 걸까? 우선 빅아이디어 프로젝트나 서우드 영화사가 기울인 노력의 가치만큼 나는 우리가 할리우드의 중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할리우드의 중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

다). 할리우드가 있는 LA에서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지만 용감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연예업계의 작가, 프로듀서, 제작자들, 그들이 비록 공익을 위해 손가락 하나 없는 정도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전심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술가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술가의 친구가 되자. 어린 예술가들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돕자. 금전적이고 실질적인 후원을 하자. 그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훈련

에 1만 시간 동안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구성이 독특하고, 명랑하고, 심금을 울리는, 거기가 재미까지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이야기로 하여금 관객들에게 진정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일도록 하는 것이다. 젊은 예술가들이 진정한 소명을 구체적으로 알아내도록 돕자. 그들이 좋은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자.

크리스천들이 예술과 오락산업이라는 대중의 광장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킬 수 있으려면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전체 교회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자신의 소명에 매진하는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한다. 또한 TV프로그램이나 영화 몇 편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수백 편의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여기 저기에 잠깐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 모든 좋은 것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욕구의 겸허한 포기가 요구될 것이다.

예술 활동을 넘어 교회가 성생활과 결혼생활에 대한 용감하고 명석하고 명확한 설명을 계속해서 내놓기를 두려워한다. 좋은 가르침과 설교는 필수다. 우리는 또한 관계적 노력과 정치적 노력이 대립하도록 해서 안 된다. 이 두 노력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

(4면으로 계속)

시론

남용하기 쉬운 약자의 용서...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미국대통령 선거가 있듯이 몇개월 같은데 벌써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민주당 후보자들이 첫 경선 TV토론을 했는데 대략 1,800만명이 이상이 시청을 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했던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생각지 못한 과거의 정치행적이 나오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시다.

내용인즉 대통령 후보 중의 한 사람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바이든 부통령이 자신의 정치행적을 소개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1970-80년대에 민주, 공화 양당이 함께 뜻을 모아 정책을 입안했던 과거 경험을 소개하며 그 때는 상대 당과도 협치가 가능했음을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그런 바이든 후보의 말에 흑인 혼혈여성인 해리스 후보자가 바이든이 공화당과 함께 뜻을 모아 만들었던 정책 중의 하나인 ‘버싱(busing) 거부’ 안건을 언급했습니다.

버싱이란 공립학교가 흑백 인종 중심으로 지나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흑인 학생들이 자기가 속한 학교의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다른 학교에 소속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립학교에 흑인학생과 백인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섞으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인학생들과 유색인종 학생들을 혼합하기 위해 학교를 넘어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흑백혼합 정책에 바이든 부통령이 상대편 공화당 의원들과 같이 뜻을 모아 반대를 했는데 그때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던 학생 중의 한 사람이 바로 해리스 후보자 자기였다 것입니다. 해리스 후보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좀 더 나은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던 작은 소녀가 바로 나”라고 울먹이는 투로 말하며 정치는 이상적인 내용들을 놓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빠르게 움직이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TV토론이 끝난 후 언론에서는 해리스 후보자가 ‘정치보다도 더 큰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인즉 백인들의 인종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에 대해 흑인들은 늘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자’고 말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결과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한 당사자들인 백인사회는 반성의 움직임 대신 오히려 흑인들은 백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용서와 이해의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된 신종단어가 용서피로증(Forgiveness fatigue)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약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는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자만하며 피해를 당한 약자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언행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신앙인들의 인간관계에서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기 때문에 설령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스폰서를 받는 그 사람이 당연히 이해하며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우리 교회와 이민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부분입니다.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내게 베푸는 용서와 긍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자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세는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약자의 용서도 강자의 용서만큼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개인과 사회! 오늘 회개하고 사울 뒤에 같은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지만 오늘 그 죄인의 참회함을 값지고 귀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롬.

thechoi82@yahoo.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이전도사는 본 교단 신학과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2019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입 학 시 험 : 2019년 8월 31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3 개 강 부흥회 : 2019년 9월 3일(화)~5일(목) 저녁 8시
- 4 수 업 기 간 : 2019년 9월 3일(화)~11월 29일(금)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718)637-147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오해와 이해

뉴욕의 이른 아침 출근기차 안은 매우 조용하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승객도 있고 신문 뉴스를 열심히 살피며, 책을 읽는 승객들이 대부분이다. 도무지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기차가 어느 병원역에 섰을 때 왈카스처럼 어린 철부지 아이들

4명이 매우 지쳐 보이는 아빠 같은 사람과 함께 열차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빈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큰 소리로 서로 떠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게 임기를 서로 먼저 하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열차 안을 금새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승객들의 무릎을 치면서... 펼쳐든 승객들의 신문들 구기면서 소리치고 울며 난리법석을 피웠다. 모든 승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당장에 야단이라도 칠 기세였지만 아빠라는 사람만을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 아빠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눈만 감고 있었다. 자기 아이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마치 남의 아이들처럼 느끼지 못한 채로 깊은 수심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드디어 승객들의 인내의 한계선은 터지고 말았다. 누군가가 아이들 아빠를 향하여 큰소리를 쳤다. '여보세요! 아이들 좀 어떻게 해보세요. 눈만 감고 있지 말고 고요...' 그 아빠라는 사람은 그때서야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떴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신거리며 승객들을 향하여 중얼거렸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나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아이들 엄마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애들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열차 안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진 것처럼 싸늘해졌다.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이들은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승객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용을 모를 때는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오해는 이해를 넘어 이제는 동정으로 바뀌었다. 아주 오래 전에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글이다. 의심도 많고 오해도 많았던 나에게 이 글은 커다란 가르침을 주었다. 세상의 모든 오해는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을 철저히 배우게 되었다. 무슨 사건이라도 바로 이해만 하면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가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데

익숙하고 조금하다. 영어의 이해는 상대방의 아래에 선다(Understand)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오해와 이해 그리고 사랑 따스한 글(5-3=2)과 (2+2=4) (5-3=2)란 어떤 오해(5)라도 세 번(3)을 생각하면 이해(2)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2+2=4)란 이해(2)와 이해(2)가 모일 때 사랑(4)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오해는 대개 잘못된 선입견 편견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고 결국 오해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5-3=2)라는 아무리 큰 오해라도 세 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풀이가 새삼 귀하게 여겨진다. (5-3=2)와 (2+2=4)란 단순한 셈을 기억했으면 한다. 서로와 서로를 가로막고 때로는 멀리 떨어뜨려 놓는 온갖 오해를 따뜻한 이해로 풀어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에 이르렀으

면 좋겠다. 서로 간에 오해라는 것이 참 어썩잖게 하찮은 일로 오해가 생긴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할 경우가 있고 또 무조건 선입견의 감정으로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 "오해"라는 영킨 실타래가 생겼다면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조금한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 세인을 밀바다에 서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빌 2:3-5, 현대인성경).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정필도 목사

(수영로교회 원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백성들을 양과 염소에 비유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향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양과 염소로 구분되듯이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구분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악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악한 것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엡 1:3).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 받았습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너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시민이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벧전 5:8). 우리를 타락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어

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혼자 어려움을 겪고 혼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12월 25일, 즉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수전절은 빛의 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힘든 학정에서 벗어나 성전을 되찾은 것을 감사해 창문에 등을 달아매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에 등을 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과 성전,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 나홀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행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야이신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입니다. 붉은 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

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다라고 기다리던 메시야,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4:16)라고 각오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부르짖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던 원수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주시니.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19-29절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양과 염소로 구분되듯이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구분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악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악한 것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27-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양과 염소로 구분되듯이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구분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악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악한 것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양과 염소로 구분되듯이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구분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악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악한 것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양과 염소로 구분되듯이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구분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악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악한 것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양과 염소로 구분되듯이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구분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악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악한 것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wo Becoming One” 목회자 부부워크샵

8월 6-7일 하늘소망교회, 복된 가정 세우는 사역자 배출

“TMCC 선교회(Tee Movers for Chinese Church/이사장이 치엔밍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부부워크샵이 “Two Becoming One(둘이 하나되어)”란 주제로 8월 6-7일 양일간 하늘소망교회(김덕수 목사)에서 개최된다. 본 “둘이 하나되어” 목회자 부부 워크샵은 복음의 기초와

본질에 충실하며 가정의 문제를 복음의 기초와 본질적인 관점과 원리로 접근한다는 것이 특징으로 20대 청년들로부터 노년세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들에게 맞추어 양육할 수 있는 사역이 특징이다. 또한 목회현장에서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양육을 해서 건강한 가정들로 세우는데 큰 역할

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선교사 가정훈련에도 매우 유익한 사역이며 은퇴 이후에도 복음의 기초와 본질에 근거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소그룹 훈련사역으로 어디서든지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워크샵 강사로는 심홍섭 목사와 심재원 사모가 강의를 맡는다. 심홍섭 목사는 서울 공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Utah에서 Ph.D와 풀러신학교 M.Div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해 섬겼으며 은

퇴 후에는 중국에서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선교훈련 사역을 감당해왔다. 본 워크샵은 미리 교재와 워크북을 받아 예습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7월 6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832)867-5764, news-ong6364@gmail.com(여승훈 목사)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3면에서 계속)

우리 중 결혼한 사람들은 이웃들보다 먼저 투명한 삶을 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총의 순간만큼이나 결혼의 불완전성과 긴장감을 우리의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결혼생활에 금이 가고 있거나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항상 그렇듯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우리의 이웃을 섬길 기회를 찾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환대를 보

여줘야 할 것이다.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웃은 적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남자와 여자다. 우리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앙에 충실한 생활과 더불어 신앙에 기초한 예술성은 우리 이웃이 삶을 “그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졌을 법한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애굽에서는 요셉과 함께 하였고, 고센으로 이주해간 야곱의 자손들과도 함께 하셨으며, 훗날 출애굽의 여정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광야길에도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은 복 받은 땅이 된다. 비록 거친 사막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다. 마치 모세의 훈련장이었던 미디안의 거친 땅 떨기나무아래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땅이 되지 않았는가?

이민의 땅 애굽에서 서술 퍼런 바로왕의 권세와 모진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넘쳐났다. 애굽이라는 세상한 복판에서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민자들이었는지라도, 하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게 하였고, 오히려 꿈의 성취를 이루는 섭리의 과정이 되게 하셨다.

인생의 복잡한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꿈은 음모로 깨어지지 않는다. 이집트 땅 고센에서 하나님의 꿈은 아름답게 실현되었던 것이다.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이 자기 밭아래 었드렸을 때, 그는 17살 때 꾸었던 꿈을 기억해 냈다. 그 꿈에 대한 기억들은 그의 지 나온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간섭아래 있게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랍고 틀림없는 분이시다. 인간은 있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인간은 경솔히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여기신다. 광야 같은 이민의 땅에서도,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고난조차도 꿈의 성취를 위한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땅을 쳐다보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부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비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라

고센은 요셉을 선발대로 미리 보내시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지낼 땅을 미리 준비토록 하셨다. 요셉은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 자신이 요셉이라 밝히고 방성대곡하였다.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증한다. 그들이 자신을 이곳에 팔았으나, 근심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다.

요셉 자신도 알지 못했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또 옥중에 있을 때도, 또 총리로 있으면서 7년 풍년에 곡식

그들을 축복하며 임종하며 그의 시신을 조상들이 있는 헤브론 막벨라 동굴에 안장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비록 고센 땅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결코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믿음의 땅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것이 야곱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생을 평안히 지낼 비결이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누려도, 약속의 땅 천국의 소망을 품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나의 삶의 지경인 고센이 그러해야 할 것이다.

용서와 관용, 용납

마지막으로 고센은 용서의 땅이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사후 자신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형들을 온전히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신 것임을 형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이번에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귀순한 네 사람이 군이나 해경의 저지를 받지 않고 강원도 삼척항에 도착한 사건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려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교회와 기독교인이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도렌스에서 홍집사기

A: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군이 경제태세의 실패와 군 정신적 해이로 인해 안보가 뻥 뚫려 현재 안보가 해체된 무능한 군이 돼버린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군사 용어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선은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군 평론가는 아니지만 과거 육군 장교 출신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요 목사로서 저 나름대로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한국이 주적 개념을 없애 버린데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가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하며 평화와 대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군인들이 누구에게 총을 겨누어야 하는지 모르니 군사훈련도 적당히 하고 군 경계 태세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까?

북한은 남한을 적으로 보고 지난 6.25전쟁의 실패를 교훈삼아 핵과 주적개념 없애 안보에 구멍...정치영역에도 하나님나라 임하도록

무력으로 기회만 되면 제2의 6.25를 일으켜 적화통일을 하려는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살아있을 때 “나는 방문객으로 한국에 오지 않고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과 국방부는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어병해서 그런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이나 국방부는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하니 참으로 순진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김정연도 최근의 연설에서 “우리 북한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은 군사력을 튼튼히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한국군의 정찰과 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 내용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와 DMZ 인근 비행금지 구역설정, 서해안중수역에서 적대행위 중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인데 이것은 우리 발을 묶고 눈을 가리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GP도 없애고 정찰기도 88선에서 85Km까지 못뜨다 보니 수도권 상공도 비행금지 구역이 되니 이것은 안보 해체요 북한이 쳐들어오기 좋게 문을 다 열어 놓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남북한 군사 조치를 국회의 허락이나 비준이 없이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고 사인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요 월권입니다. 이렇게 하다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북한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약속하고도 수없이 거짓말하였던 집단입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대통령을 만나 평화무드를 조성하면서 그 기간에 북한은 핵을 10개나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셋째, 나라의 통치자는 (1)자유민주주의 (2)시장경제 (3)법치주의 (4)공정한 한미동맹으로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가만히 침묵만 말고 선지자처럼 책망도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영역에도 임하게 해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 때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뿐 아니라 정치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망하면 교회도 신앙생활도 존재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 속 아름답고 복된 '고센'

- 이민의 땅, 믿음의 관점, 섭리적 은혜 -

나눔이 함께 하시는 그곳, 고센은 축복의 땅이었다. 고센 땅은 요셉과 관계가 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청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할 때, 바로 왕으로부터 그들의 거주지를 나일강의 마지막 부분인 비옥한 델타 지역 즉 고센 땅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다.

'고센'이란 '접근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할 즉 접근함이란 신앙의 염원을 담고 있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애굽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의 한 견예, 양식 찾아 먹고 살기위해 온 이민자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복되게 하셨다. 낯선 타국의 이민자로서 살아가지만, 저들은 고센을 믿음으로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게 하는 것이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실 때 제일 눈에 번쩍한 말씀이 바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이었다. 75세된 그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명받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뚫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별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별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주신 후손임을 보았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살 기 힘든 가나안에서 400년을 지냈더라도 잠정만 60만 대군이 되는 약 300만 백성이 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4대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고, 집안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대부분 집안에 1000명 넘기가 힘들 것이다. 이에 비해 야곱의 4대손은 고센 땅에서 잠정만 60만 대군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옥한 땅 고센으로 이들을 불러들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70명 야곱의 가족이 이민을 오듯이, 우리 자신들도 비록 작고 초라해

을 넉넉히 사들인 후 7년 흉년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도, 자기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다. 역을 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섭리적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삶의 승리를 가져온다. 섭리적 은혜(Providential Grace)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가 그치지 않는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고센을 중심해서 이스라엘을 발흥케 한 것이다. 그냥 두었으면, 복수의 칼날과 핏빛이 난무했을 고센 땅이 은혜의 땅이 된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제들에게 확장한 것이다. 사단마귀는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은근히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음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다.

오래전 아미쉬 마을의 학교에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난사하여 어린아이들과 여러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아미쉬 형제들은 철저히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평화주의자들이었다.

<8면으로 계속>

섭리안에서 꿈을 해석하라

고센은 요셉의 꿈이 실현된 곳이다. 요셉은 형들과 부모 앞에서 자신이 꿈 꿈을 당당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줄 확신했었고 언젠가는 그 꿈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고센에서 모두 성취가 되었다. 밭에서 곡식을 묶는데 형제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과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그에게 절하더라는 꿈이다.

요셉의 꿈으로 인해 형들은 시기가 나서 흥분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은 이처럼 자신이 꾸는 꿈으로 인하여 그는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는 아주 조롱하는 말이였다. 그 조롱하는 질투가 그를 형제들로부터 죽음 같은 배신과 고통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임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꿈을 무효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약속의 땅, 천국의 소망

고센은 야곱이 생의 마지막 17년간을 지낼 수 있었던 땅이었다. 요셉이 17세 될 때까지 함께 지냈던 야곱은 그의 생애 마지막(130-147세) 17년을 사랑하는 아들과 고센에서 지낼 수 있었다. 야곱은 제일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일국의 총리로 있는 모습만 보아도 행복했을 것이다. 두 손자를 품에 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흡족했을 것이다. 바로왕 앞에서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던 야곱이, 양식이 없어 구걸하듯 찾아왔던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사는 걱정이 필요 없게 된 곳이 고센이다. 그곳에서 야곱의 말년은 그야말로 안식의 연수였다. 참으로 마음 고생, 육체고생을 많이 했으나 고센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야곱은 평안히 노후를 안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열 두 아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브라후이(BRAHUI)

파키스탄의 2백 30만 브라후이인들은 켈라트(Kelat)에 거주한다. 약 3만 평방마일의 지역이 사라완(Sarawan) 고지와 카키(Kacci) 저지대 평원으로 나뉜다. 이 지역은 다시 술라이만(Sulaiman)과 키르타르(Kirthar) 산지 그리고 80마일 길이의 볼란 길(Bolan Pass)로 나뉜다. 아프가니스탄의



남부지방과 이란에도 작은 브라후이 집단이 있다. 브라후이인들은 1600년대에 권력을 잡기 위해 힌두왕조를 전복시켰다. 1700년대 나시르 칸(Nasir Khan) 시대에 그 연합체는 절정에 달했다. 오늘날 브라후이인들은 29개 부족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8부족이 브라후이의 핵심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브라후이인들은 그들이 브라후이디어(Brahuidi)라고 불리는 드라비다어(Dravidian languag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웃인 푸쉬툰인(Pushtun), 발루치인(Baluchi)과 구별된다. 언어학자들은 이

브라후이인들이 남부 인도의 드라비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1000마일이나 떨어져 살면서 어떻게 관련됐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삶의 모습

오랫동안 대부분의 브라후이인들은 그들의 가족을 위해 적당한 기온과 비, 목초지를 찾아 고지대와 저지대 사이를 이동하는 유목민이었다. 출고업이 어는 겨울에는 평야에서 살고 2월이나 3월에 양들이 태어난 후 다시 산지로 돌아갔다. 브라후이 유목민들의 숫자는 과거 백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완전히 마을에 정착했고 지하수를 이용해 관개하고 여러 가지 현찰 곡물들을 기른다. 행정관서 상업 중심지들이 있는 마을들이 많지만 연중 계속해서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다. 브라후이 양치기들은 그들의 가사 일을 협력하기 위해 "칼크(khalks)"라고 하는 모임을 조직하였다. 각 칼크는 상주하면서 일하는 직업적인 한 명의 양치기와 한무리의 양떼로 구성된다. 이 상주 양치기(resident shepherd)는 양을 500마리까지 담당한다. 이것으로 인해 어른, 아이를 포함한 남자들이 밀 수확을 위한 마을 농장으로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후이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 상주 양치기는 남자들을 시켜서 이들의 가족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다른 브라후이들과 양떼의 위치나 양떼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칼크(khalks)"의 이용을 인해 브라후이인들은 전문적인 양치기가 됐다. 이들은 양들을 함께 방목할 수 있는 최적 숫자를 알아냈고, 양들이 숫자가

적어 흩어져 돌아다닐 때 편안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양의 수가 5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는 양치기를 그룹을 나눠서 새로운 칼크를 형성하기 위한 천막집을 만들어 이동한다. 결혼은 가족 내에서 중매로 이뤄진다. 가끔 친척이 아닌 경우 사랑하는 두 사람의 희망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쪽의 사촌과 결혼하기를 바란다. 남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나,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이 관습이 제한되곤 한다. 이혼은 브라후이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드물다. 전형적인 가정에서는 결혼한 아들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산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형제들은 장자의 통솔아래 하나의 재산을 가지고 함께 산다. 부족(The tribe)은 브라후이족의 정치적인 기본단위다.

부족들은 부자승계(patrilinal descent)와 정치적 연합에 그들의 기초를 두고 있다. 신앙 대부분의 브라후이인들은 수니 무슬림이다. 이들은 신앙심이 강하고 이슬람의 다섯 가지 의무(기도, 금식, 자선,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이다"라는 확언, 메카로의 순례여행)에 충실하다. 필요한 것들 현재, 두개의 선표단체가 이란의 브라후이인들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으나 이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매우 적다. 이들에게는 종보기도와 추가의 복음적인 자료들, 그리고 이들의 거친 유목민적인 생활양식에 거기에 적응해 이들 사이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독교변증학자 노만 가이슬러 별세

미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노만 가이슬러(사진) 박사가 지난 3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온건한 칼뱅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1968년 이후 조직신학과 기독교 변증학, 철학·인문 등 분야에서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며 복음주의 신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미국 시카고 휘튼대와 로올라대(PhD)를 졸업하고 50년 이상 다양한 신학과 대학원에서 신학과 철학, 기독교 변증학을 가르쳤다. 미국 복음주의신학회 회장과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교수를 지냈다. 1978년 성경의 무오함을 선언한 시카고선언을 기초한 신학자들의 일원이었다.

'기독교 철학개론' '구약성경개론' '마음을 여는 전도대화' '기독교 윤리로 세상을 읽다'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을까(공저)', '진리의 기독교'(공저) 등 70여권의 책과 수백 편의 논문을 저술하거나 공동 집필했다.

가이슬러 박사는 고전 변증학을 통해 성경과 믿음을 변호해왔다. 복음주의를 수용한 철학자들이 거의 없던 시절, 신자들이 자신이 믿는 신앙을 변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집필했다. 그레고리 겐슬 탈봇신학교 교수는 "가이슬러 박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정교한 변증학의 길을 열었다"고 평했다. 미국 크리스천티비투데이는 가이슬러 박사를 '토마스 아퀴나스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혼합된 인물'이라고 묘사했다.

가이슬러 박사는 신학생들에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신앙의 역사적 교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변호할 수 있도록 강조해왔다. 변증학자인 JP 모어랜드 탈봇신학교(철학) 교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쉽 없이 달려왔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신실했던 형제였다"고 말했다.

'실종' 호주인北市 플러너...

영국 BBC, 가디언 등은 북한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호주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29)가 석방됐다고 4일 북한전문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시글리가 "석방됐고 안전하다"고 밝혔다. BBC는 전했다. 이 같은 발표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북한 당국자 간 면담 이후 나왔다.

NK뉴스는 1주일 넘도록 행방이 묘연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시글리가 중국에서 '안전하고 무사하다'고 전했다. 매체는 시글리의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글리가 부인이 사는 일본 도쿄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글리는 지난해 4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 석사과정에 입학해 유학생생활을 해오다 최근 연락이 두절됐다.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의소리(VOA)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지난 24일이나 25일 사이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한 바 있다.

시글리는 올해 3월 영국 가디언에 보낸 기고문에서 평양에 외식 문화가 발전하고 있으며 지하철에는 '스마트폰 쯤비'를 쉽게 발견할 수 있

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성공회, 최초 흑인여성 주교 임명

영국 성공회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주교가 탄생했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로즈 허드슨 윌킨 주교는 11월 영국 잉글랜드 캔트주의 도버시의 새 주교로 임명된다.



윌킨 주교는 1982년 자메이카를 떠나 웨스트미들랜즈 주에서 성공회 신앙을 훈련 받았으며 1994년 여성 사제로 서품됐다. 그는 더 많은 흑인과 소수민족 성직자가 임명돼야 한다고 평소 주장해왔다. 블랙리스트를 반대하는 성명에도 나섰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27일 윌킨 주교의 임명을 "역사적이고 획기적"이라며 "영국 내 소수 민족을 위해 앞장 선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주교였다"고 소개했다.

北 "美, 적대적 행위에 광분"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미국이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광분(hell-bent)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미국이 주도해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낸 것을 문제 삼고 나섰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북·미 간 평화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이번 성명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돌발적인 행위가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프랑스·독일·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올해 12월 23일까지 모든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달 29일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낸 것이 북한을 자극했다.

북한대표부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정상 회담을 제안한 바로 그날 미국무부의 지시를 받은 유엔 주재 미국대부를 통해 (미국·프랑스·독일·영국)의 연합 서한이 발송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 중이던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DMZ) 회동을 제안했던 것을 거론한 것이다. 미국이 '더블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북한 대표부의 주장인 셈이다.

북한대표부는 "연합 서한은 미국이 북·미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실제적으로 점점 더 적대적 행위에 광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재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기고, 제재와 압박에 집착해 미국이 계속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교했다. 북한대표부는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한반도에서 힘들게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계산된 행동에 대해 감시를 늦추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도의 연합 서한은 지난달 27일 작성됐으며 28일부터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근로자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지난 3월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제출한 회원국은 30여 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연합 서한 작성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대표부의 이번 성명은 또 미국이 10여개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대북 제재 해제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수입하면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문서를 지난달 11일 유엔 안보리에 보낸 데 대해 대응 성격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북한의 이번 대응은 북·미 대화 무드와는 별개로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해제 목소리가 커져 가기를 기대하는 포석도 깔려 있다.

워싱턴 방문, 김정은에게 '양날의 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스무 걸음 밟았다. 이제 관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땅을 밟는 것이 현실화될지에 쏠리고 있다. 이것은 4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려 있는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은 두 번째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전했으며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뛰어넘는 '세기의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방문은 '백악관 햄버거 회동'으로 비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최초로 밟은 미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김 위원장도 미국 땅을 밟은 최초의 북한 지도자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게 미국 방문은 양날의 칼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3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미국 땅을 밟는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북한이 독재와 인권 탄압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을 무턱대고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할 경우 김 위원장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백악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북한 내에서 최고 존엄으로 평가받는 김 위원장의 지도력이 위기에 처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선불리 미국행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은 북·미 비핵화 협상 성과에 달려 있다. 비핵화 협상에서 북·미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경우 최종 피날레인 협정식이 워싱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협상의 중간 단계에서 김 위원장이 '워싱턴행'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북·미 두 정상의 과격적 행보를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방미가 올해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P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판문점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발언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판문점 회담으로 북·

미 정상회담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것은 큰 성과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판문점 회동 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은 도박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도박이) 먹혀들었다"고 응수하며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오늘 역사에 남을 일을 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DMZ 방문을 동행하게 돼 영광이었다"며 "싱가포르에서 양국이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내 북한 카운터파트와 일해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사항 이행 작업이 이날로써 재개됐다고 덧붙였다.

흔들리는 바이든 대선론...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다툰은 당사처럼 여겨졌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론이 휘청대고 있다. 첫 TV토론에서 참패한 결과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은 2020년 7월 13-16일 이뤄진다.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카운터펀치를 맞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1년여 남은 경선 레이스에서 수위를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새로운 스타로 부상한 인물은 흑인 여성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첫 TV토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하면서 급부상했다.

CNN방송은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의 22%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1일 보도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17%의 지지율을 얻으며 처음 2위 자리에 올랐다. 5% 포인트 차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맹추격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5%로 3위를 기록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4%로 4위에 랭크됐다.

CNN의 5월 말 조사와 이번 6월 말 조사를 비교하면 바이든의 추락과 해리스의 약진을 쉽게 알 수 있다. 5월 말 조사에서 바이든은 32% 지지율을 얻으며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최소한 민주당 내에선 무적(無敵) 후보였다. 해리스는 8% 지지율에 불과한 중위권 후보였다.

그러나 6월 말 조사에서 바이든은 22%를 얻으며 10% 포인트나 지지율이 폭락했다. 반면 해리스의 지지율은 9% 포인트나 급부상했다. 한 달 사이 24% 포인트였던 격차가 19% 포인트로 줄었다.

민주당 경선 초기 판도를 바꿀뻔한 것은 지난 달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첫 TV토론이었다. CNN 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해리스가 TV토론에서 가장 잘했다'고 답했다. 바이든을 뽑은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해리스는 바이든을 향해 "당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문을 연 뒤 "1970년대 교육부가 추진한 흑백 인종 통합 교육과 이를 위한 스쿨버스 운행을 막기 위해 바이든이 노력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버스로 통학하던 한 소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서 "그 어린 소녀는 바로 나왔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후보들의 협공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이 첫 TV토론의 패자로 바이든을 지목한 이유다.

초반 국면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바이든은 여전히 저력 있는 후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43%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수 있는 필승 카드로 바이든을 꼽고 있다. 탄탄한 지지층도 바이든의 강점이다. 노인층과 중도·보수 성향의 민주당 지지층에선 바이든이 1등 후보다. 흑인 지지율도 바이든(36%)이 흑인인 해리스(24%)보다 높다.

프라하의 불
 안 후스(Jan Hus, 1369-1415)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와 함께 16세기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1348년에 현재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설립된 카렐 대학에 입학하여 인문학과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같은 대학의 학장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카렐 대학이 체코 종교개혁의 근원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후스는 1400년에 로마가톨릭교회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다. 1402년부터 약 10년간 학교의 베들레헴채플의 설교자로 섬겼다. 그의 개혁적 설교가 학생은 물론 동료교수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곳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그 당시 가톨릭교회와 매우 다른 점이 있었다. 먼저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 즉 예배를 위해 참석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가 출간한 설교집을 통해 체코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 나아가서 정사각형에 가까운 베들레헴채플 건물의 한 면 중심에 강대상을 자리하게 하였다. 예배를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다.

프라하의 어원은 '문턱'이다. 유럽 대륙의 중앙에서 유럽의 동서를 잇는 교차로 역할을 하던 요지에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프라하는 위클리프가 활동하던 런던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녔었다. 후스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은 꼽으라면 단연 위클리프이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위클리프의 글에 대표되었다. 후스는 성경을 중심하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지닐 수 있는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활동한 것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교회 개혁의 물결이 대륙의 체코로 건너갔다. 프라하의 영적인 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체코교회의 개혁 배경
 후스의 개혁은 영국의 위클리프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체코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후스가 활동하기 전부터 이미 체코의 종교개혁은 성만찬을 중심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안 밀리치(Jan Milic, 1305-1374)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부로 활동하다가 교회의 부패를 참지 못하고 사임한 뒤 줄곧 중세교회의 세속화를 공격하면서 성경을 삶의 표본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도 모국어 사용하여 설교하였는데, 평신도들의 신앙을 위해 반드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밀리치가 성만찬을 개혁의 중심

로 수용한 이유가 있다. 그가 교회의 개혁과 대중적 개혁운동을 같은 맥락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단은 매우 과감하였다. 1372년, 프라하의 중심에 자리한 홀등가를 찾아가 장녀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만찬을 베풀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복음을 전해 듣고 이해한 여인들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회심한 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위치에서 살아갔다. 과거 장녀촌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밀리치가 장녀들에게 제공한 성만찬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필요했던 매일의 양식이었다. 사회로부터 버려진 채 고픈 배를 쥐고 살아가던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었다. 중세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어져 살던 자들에게 이러한 고민은 그 자체가 혁신적인 것이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잘 살다가 죽는 것보다 더욱 큰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후스도 중세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있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그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게 하였다. 당시 그가 경험하던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판이하게 달랐다. 그는 성경 뿐 아니라 교부들과 다른 신학자들의 글을 광범위하게 섭렵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발견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시작하였

이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그가 교회를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하나됨과 보편성은, 오직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만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오직 그리스도만 선택된 자들의 머리가 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고위 성직자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일이었다.

후스는 '교회'의 7장부터 10장까지 교회의 신앙, 기초, 권위 등을 서술하면서 교황권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기록하였다(7장, 로마교황과 추기경들이 보편교회는 아니다. 8장,

고용인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15장부터 마지막까지 는 교황과 지도자들을 향한 저항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5장, 교황과 추기경들이 없어도 교회는 다스려질 수 있다. 16장, 하나님의 법이 교회의 판결 기준이다. 17장, 교황권에 대한 후스의 저항. 18장, 사도직 지위 혹은 베드로의 권좌. 19장, 언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20장, 교회나 고위성직자들에게 언제나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1장, 어떤 상황에서 고위성직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22장, 정당한 파문과 부당한 파문, 23장, 성직 정지와 금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후스는 면죄부는 물론 성직임명이나 성직록 등에 대하여 향후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보다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는 것이다.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39)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교회'라는 논문을 저술하는 것이었다. 파급 효과가 대단하였다.

후스가 '교회'를 집필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 1413년, 프라하대학 신학부 소속 8명의 교수들이 로마가톨릭교회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였다. 프라하에서 면죄부를 파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후스에게도 복종하고 동참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

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교회'라는 논문을 저술하는 것이었다. 파급 효과가 대단하였다.

후스가 '교회'를 집필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 1413년, 프라하대학 신학부 소속 8명의 교수들이 로마가톨릭교회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였다. 프라하에서 면죄부를 파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후스에게도 복종하고 동참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

교회의 토대인 신앙. 9장,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10장, 메고 푸는 권세. 후스는 교황과 로마교회를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전혀 반대되는 집단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성장하게 하는데, 로마교회는 무조건 자신들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복종하라며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청하

거위와 백조
 로마가톨릭교회는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에서 후스를 이단으로 선고하였다. 원래 이 공의회가 모인 목적은 3명의 교황이 정통성을 다투는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을 종식하고 교회를 통일하기 위함이었다. 후스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지기스문트로부터 신변안전 보장을 받고 콘스탄츠로 갔지만 약속과 달리 체포당한 뒤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죄인으로 몰아갔다. 심지어 후스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뤄진 4위격이라고 주장했다고 사실 무근의 죄목을 포함시켰다.

1415년 7월 6일, 후스는 화형식이 벌어졌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세속권력자에게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하였다. 후스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판결 이후 성직 박탈 의식이 행해졌다. 그에게 '이단의 주도자'라는 글과 마귀가 그려진 모자를 씌웠다. 후스는 팔을 벌려 시편 21편을 낭독했다. 그는 자신이 썼던 모자가 이단의 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황금의 관임을 확신하였다.

후스의 화형에 대해 체코인들이 격분했다. 결국 1419년부터 1436년까지 수스전쟁이 계속되었다. 이 전쟁으로 중유럽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로마교회는 개혁자의 목숨을 빼앗아갔지만 그의 개혁사상은 힘차게 널리 퍼져나간 것이다.

후스는 '거위'란 뜻이다. 거위를 키우는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얻은 이름이다. 그가 순교한 날인 유명한 말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태우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1세기와 2년이 지난 뒤인 1517년에 그가 언급한 백조가 나타났다. 그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이다.

covenantcho@yahoo.com

또 한명의 종교개혁 선구자 체코의 안 후스, 위클리프 영향 받아 순교시 1세기 지나 태우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 루터 출현 예고

z Janova, 1350-1393)가 그의 제자 중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 역시 성만찬을 중심으로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 하였다. 그는 교회의 타락을 불러온 성직자들의 사치스런 생활이 가난한 사람을 낳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수시로 평신도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었으며, 그 결과 사회 변화의 통로가 되었다. 무엇보다 마테이를 통해 '이 종성찬'이란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참고로, 이종성찬이란 사제들에게만 포도주를 주던 전통을 깨고 평신도들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동시에 주는 것이다.

바로 그 교회!
 위클리프의 개혁사상과 함께 체코 교회 개혁 선구자들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은 후스의 가장 큰 고민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었다. 후스가 그들의 요구에 대한 답을 위해 저술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논문이다. 위클리프의 교회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성경구절을 대다수 인용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교회'는 모두 2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각 장의 제목만 읽어봐도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한 그의 진지한 고민이 잘 담겨져 있다(1장, 교회의 하나됨. 2장, 하나의 보편적 교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3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인 것은 아니다. 4장, 그리스도, 교회의 유일한 머리. 5장, 교회 안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6장, 그리스도, 선택받은 자들의 머리).

면서 교회의 기초라고 주장하지만 교회의 근본은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시다. 교회의 권세 역시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에 준 것이다.

나아가서 후스는 11장에서 14장에서 '교회'를 맡은 자들의 신앙은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11장, 성직자의 권세를 옹호하기 위한 성서의 남용, 12장, 구원은 진정한 로마의 감독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13장,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14장, 추기경들이 사도들의 진정한 계승자일 때). 교회에서 참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삶 속에서 열매를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일을 추구하면서 직분을 맡고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p>추천 도서</p>  <p>Don't give up. 포기하지마 카일 아이틀먼 / 규장</p> <p>나를 돌아보는 시간 김유비 / 규장</p> <p>내게 힘을 주는 교회 한홍 / 규장</p> <p>행복예수 김형석 / Denstory</p> <p>하늘과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 이보영 / 대한기독교서회</p>	<p>회원사</p> <p>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p>
<p>후원</p> <p>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p> <p>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p>	<p>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p>

성경도 신앙 (31)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것이 어떤 형태의 정치형태가 일어나도 교회는 계속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사실을 계속 역설하고 있어야 한다.

나)정치적인 영역에 대해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시민들을 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말한다. 역사를 읽으면 국가가 그런 일에 너무 많이 실패했다. 때로는 청교도들도 기회를 얻었을 때 국가를 지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사람들을 폭군적으로 압제하고 있다면 국가의 소명을 낭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그 점을 분명히 해줄 의무가 있다.

다)교육에 대해, 국가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배우라고 촉구하는 것은 그 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국가가 로마교회의 지배를 받을 때 백성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배우라고 강제력을 동원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만들려 애써도 안된다. 국가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라)사회문화적 삶 전체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 예를 들어 교회는 예술에 대해

는 교훈을 꼭 기억해야 한다. 교회와 국가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이다. 그 둘 다 수행해야 할 나름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둘의 차이를 알고 결코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기능과 국가의 기능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혼동하는 경향이 오늘까지 있어왔기 때문이다. 설교자로서 정치가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며 영적인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신앙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 기능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6)국가와 관련된 교회의 임무
교회의 최상의 임무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복음의 전령들이다. 그 뿐 아니라 교회와 설교자의 임무는 희소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거룩한 믿음 안

교회와 국가는 기능과 차이가 다르다는 것 인정 기독교회는 전인격을 동원해 사고방식 전체 장악

4)국가와 교회의 문제에 대해 주의할 내용

첫째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독교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된다. 둘째로 우리는 결코 주님의 나라를 한 가지의 미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서도 안된다. 그 한 가지의 미란 바로 교회 안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구원의 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의 세대로 이어가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 구원받도록 하는 일, 곧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골1:13)라는 의미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신앙은 분명하게 두 나라들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음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곧 이 세상 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 사이의 긴장을 말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들이 주의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확실하게 보이게 할 것이 없다.

5) 기능의 차이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국가와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진 관계에 대하여 성경이 진취적으로 가르치

에 세워주는 것이다(유20, 엡3:17-19). 그렇게 함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설교해야 한다(행20:27). 만일 교회가 복음을 사회적으로만 적용하는데 힘을 쏟는다면,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는 정치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회는 정치와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하는 원리들을 설정해야 한다. 교회는 정의들을 제시해야 하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위대한 원리들을 전제해야 한다.

가)교회는 국가가 하나님께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국가와 정부는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태의 예술이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되신 전체 개념을 반대하는 형태의 예술도 있음을 구분해줄 수 있어야 한다.

마)음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음악이 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음악이 있고 일부러 모든 법칙을 깨뜨려 버리고 혼란케 하는 마귀적이고 폭력적인 음악이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로마서 13장 전체 교훈을 가르치는 것도 교회의 한 임무이기도 하다.

의 현상들이 고센처럼 되기를 소망한다. 세월이 흘러도, 태평양을 건너던 그 꿈을 잊지 말라. 고난도 섭리 안에서 해석하자. 어렵고 힘이 들어도 땅을 보지 말고, 머리를 들고 하늘의 못별들을 바라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음을 믿음으로 구하라. 이땅이 아무리 좋아도 아깝처럼 돌아갈 곳, 천국을 잊지 말라. 마지막으로 이민의 삶은 척박하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패배하다. 그러나 용서와 용납과 관용이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며 힘써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고센처럼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었다가, 훗날 천국에서의 영화(Glorification)에 드는 복도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하시리라.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고난의 의미

지난달 한국방문 중에 언니들하고 “교회오빠”라는 영화를 관람했다. “우리 주변의 읍”이라는 영어 타이틀이 붙어 있는 “교회오빠”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한 성도의 투병과 그 가운데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처음 언니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대강 들었을 때는 별로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았다. 거의 삼십년 전 남편을 암으로 보낸 슬픔을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회오빠”는 이제는 주님 품에 있는 고이관희 집사님이 겪은 고난의 무게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모습을 통해 크리스천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 결혼 후 첫 아기가 태어나고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집으로 오던 날 알게 된 대장암 4기 진단, 아들의 암 소식을 감당하지 못해 죽음을 택하는 어머니, 곧 이어 아내의 혈액암 4기 진단,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고난의 연속을 믿음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타락 이후 고난은 우리의 삶에 “실존의 고통”이 되었다. 깨어진 관계, 사고, 질병, 깨진 꿈, 죽음 등 우리의 삶에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질문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고난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신비의 영역이다. 시편에서 읽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한 탄식과 절망, 그리고 도움의 요청은 짙은 동굴에 갇혀 있는 듯한 우리에게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된다. 60%의 사람들이 일생 중 한번은 고난을 겪으며 그들 중 70%는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논문을 읽었다. 또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경우 시간이 지난 후 그 고난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갈수록 태산 같이 느껴지는 요셉의 고난이나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연속의 고난을 당하는 읍이 고난 이후 영적인 성장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것일까? 그래서 고난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옛날부터 “신정설”이라는 주제로 존재했다. 읍의 친구들이 해석한 것처럼 고난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견해나 우리를 교육시키는 기회로 보는 견해는 하나님을 무섭고 엄격한 분, 팔짱을 낀 채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지켜만 보시는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동행자로 보는 견해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친밀하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 아버지로 생각할 때 비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고난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믿음의 힘이 생긴다. 충격적 경험은 우리의 영성에 영향을 끼치지만 동시에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위기의 해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약물치료와 잠시 동안의 회복, 그리고 다시 찾아온 암 앞에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다루며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 담담하게 서 있는 한 성도의 모습은 모든 관객이 영화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진한 감동을 남겼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며 말기 암의 통증 가운데에서도 물핀을 거부하는 믿음의 거인, 하나님이 본인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병이 낫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면 그의 인간적인 고백이 가슴 깊이 남는다.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난을 뚫을 수 있는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lpyun@apu.edu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모든 이들이 아마쉬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주시겠다. 예상대로 이들은 희생당한 아이들을 묻으면서 “이들은 천국에 갔다”고 서로 위안하며, 총기를 난사하고 자살한 찰스 로버츠 4세를 용서했다. 특히, 살인자 로버츠의 장례에 참석했던 75명 중 절반이 아마쉬 마을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저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장례를 집전하던 목사님도,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던 열흘 만에 그 사고 현장의 학교건물을 다 철거하고 발로로 만들었다.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좋지 않은 미

움의 기억들이 생길까봐 다른 곳에 건물을 짓기로 하고 철거하였다.

용서를 통해 고센 땅은 비록 애굽의 작은 지역에 불과했지만, 열두 형제의 가족들이 무려 무려 먹고 자라며 하나님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가 되었다. 이민사회에서 가족 간에도 용납과 관용이 어려운 환경들이 있음을 본다. 그러나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자신의 영혼이 살고, 가정과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사는 길이다.

애굽의 고센 땅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의 한켠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다. 잘 사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망양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찬양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라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328),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0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남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분 주일2부예배: 오전 10:00분 주일3부예배: 오전 11:30분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환교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예수 믿는 순간 주어지는 60가지 놀라운 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성도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예' 하고 믿기만 하면 '수'지 맞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 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주어지는 60가지 놀라운 일에 대하여 편집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거듭남(중생)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요3:3, 5, 벰전1:23). (2)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고후5:17). (3) 구원을 받게 됩니다(행4:12, 16:31). (4)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요10:28, 요일5:13). (5) 백하심을 입게 됩니다(벰전1:2, 엡1:4, 요15:16). (6)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롬8:15, 엡1:5). (7)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요1:12). (8)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행26:18, 엡1:11, 14). (9)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롬8:17, 갈3:29). (10)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빌3:20).

(11)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벰전2:9, 벰전2:5). (12)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요15:15). (13)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롬1:1, 6:22). (14) 어린양(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마25:1-13, 고후11:2). (15) 예수님이 말행이 되십니다(롬8:29). (16)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됩니다(롬5:10). (17)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엡3:12). (18)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게 됩니다(요일2:27). (19) 나의 몸은 성령님

이 거하시는 전이 됩니다(고전3:16, 6:19). (20) 성령으로 영적인 은사가 주어집니다(고전12:4-11).

(21)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엡1:13, 4:30). (22)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고전6:11). (23)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롬8:16). (24)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갈5:22-23). (25)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눅7:48, 엡1:7). (26)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롬4:5:5:1). (27) 구속함을 받습니다(벰전1:18-19, 계5:9). (28)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요16:33, 요일5:4). (29) 신령한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엡1:3). (30) 병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마8:17, 사53:5).

(31) 악한 귀신의 영이 떠나 가게 됩니다(막16:17). (32)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됩니다(마21:22, 막11:24). (33) 복스러운 소망을 받게 됩니다(

딤후2:13, 계22:20). (34) 평화(평안, 평강)를 얻게 됩니다(요14:27, 빌4:7). (35) 하늘에 이름이 기록됩니다(눅10:20, 빌4:3). (36)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요일2:1). (37)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대사로 파송됩니다(고후5:20). (38)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고후9:13). (39)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엡1:6). (40)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몸이 됩니다(고전12:13, 갈3:27).

(41)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사랑의 선물이 됩니다(요17:9). (42)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게 됩니다(엡2:6). (43)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요일1:3). (44) 대환난 전에 들림(휴거) 받게 됩니다(살전4:16-17, 눅21:35-36). (45) 죽어도 부활하게 됩니다(요11:25-26, 고전15:20, 23). (46) 하늘 나라에 영광스러운 거처가 생깁니다(요14:2-3). (47) 여호와와 집(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시23:6). (48)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49)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살전5:18). (50)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51) 영육혼이 잘 되는 3중적인 복을 받습니다(마6:33. 요삼1:2). (52)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요15:11, 16:24). (53)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시127-128). (54) 걱정, 근심, 염려, 번민이 없어집니다(빌4:6-7, 벰전5:7). (55)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왕삼3:3-13, 약1:5). (56)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잠1:7). (57)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마11:29, 민12:3). (58)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수1:7, 9). (59) 존경과 신뢰 받는 사람이 됩니다(행10:22). (60) 내 마음에 천국(심령천국)이 이루어 집니다(눅17:21, 롬14:17).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북미루터교회한인총회 제28차 총회, 총회장 문현봉 목사

북미루터교회한인총회(총회장 문현봉 목사)는 제 28차 총회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느 8:8)'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다니교회(송진영 목사)에서 개최했다.

문현봉 총회장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마틴루터 박사의 주도로 시작된 종교개혁의 망치소리가 울려 퍼진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말씀위에 서있는가 반문해볼 때 부정적인 대답이 정직한 대답일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에 여러 가지 악조건 아래서 말씀위에 굳게 서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북미루터교회 내 한인교회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의 노고에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이번 총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총회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잘못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충



북미 루터교회 한인총회 제28차 총회 폐회예배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실한 교회가 목회자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첫날 오후 송진영 목사 사회와 문현봉 총회장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설교로 예배를 드렸으며 둘째 날은 김윤철 목사 인도로 아침 경건회를 가졌다.

이어 김병곤 목사가 '루터교회 소셜서비스 사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마이크 김슨 박사(피서픽 서남부교구 대표)가 환영사를 했다.

이어 송요셉 목사가 '사회적인 사역', 최남진 목사가 '가정 폭력에 대한 실제적인 사역들'이란 주제로 특강했으며 회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 아침은 김정환 목사가 경건회를 인도했으며 탐박 목사가 '루터된 신학 질의응답'을 인도했다. 그리고 김영규 목사 사회와 흥영환 목사 설교로 닫는 예배를 갖고 폐회했다.

북미루터교회한인총회는 루터교회 비주리 시노드에 포함된 북미주 한인목회자들의 모임이다. 신학은 한국의 합동측의 신학과 맥을 같이 하며 여성성목사안수 불하는 물론 동성애 목회자 및 동성결혼을 불허하며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을 따르고 있다.

(박준호 기자)



PGM선교사집중훈련 파송예배에서 선교사들에게 안수기도하고 있다.

제4회 PGM 선교사 집중훈련

6월 17-23일 훈련생 10명 참여

제 4회 PGM선교사집중훈련이 지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필라, 뉴욕, 뉴저지, 그린스보로에서 모인 10여명의 훈련생이 참여한 가운데 필라 지역에서 열렸다.

6월 17-20일은 뉴저지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집중훈련을, 21-22일 필라 Upper Darby에 다민족교회로 개최된 안디옥열방교회에서 전도훈련을, 23일에는 필라 안디옥교회에서 파송식이 있었다.

PGM 선교사집중훈련은의 목적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선

교인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Here & Now 선교사 및 해외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다. 이번 선교사집중훈련을 통해 1명의 수료자와 7unit 11명의 PGM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에 현재까지 선교사집중훈련을 통해 7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매해마다 훈련생들의 평가를 주의 깊게 받아들여 더욱 알차고 귀한 훈련을 준비하고자 이번 PGM선교사집중훈련에서는 공동체 훈련을 위해 뉴저지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합숙훈련을 실시했고 또한 21-22일

이틀간 집중적인 전도특강과 전도실습을 진행했다.

특별히 올해는 기존 PGM 4대 핵심가치에서 7대 핵심가치(성령충만중심선교, 디아스포라중심선교, Here&Now중심선교, 전문인중심선교, 지역교회중심선교, 지역교회설립중심선교, 땅끝으로가는중심선교)로 수정 보완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해 훈련생들로 하여금 더욱 풍성하고 알찬 훈련을 받았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7대 핵심가치 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예배 및 지역교회 탐방(뉴욕하운교회), 필라도심선교(이태후 선교사) 현장실습과 선교특강으로 히스패닉 선교사례 및 선교사의 삶 생활이 있었으며, 20일 저녁에는 김은범 목사(뉴저지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담임, PGM 정책이사)가 '선교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저녁집회를 인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PGM 선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내 평신도들을 깨워 훈련함으로 마지막 때에 선교의 동력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PGM 선교회)



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뉴욕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독도문화 국민축제 뉴욕에서 열린다

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10월 20일 프라미스교회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오는 10월 20일 프라미스교회에서 제 119주년 독도 칙령제정 반포의 날 기념식 및 독도문화 국민축제를 개최한다.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장 문제익) 일행은 지난 6월 27일 뉴욕을 방문하고 뉴욕행사 취지 설명을 하고 뉴욕지부를 결성했다.

오전 11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준비회의는 이중명 목사(대회장) 사회로 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기도 심평중 미기총 대표회장, 동영상 시청, 뉴욕행사 취지 설명으로 진행됐다.

문제의 상임대표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일본은 2013년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정했는데, 한국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세계에 이를 알리려고 그동안 이태리와 독일에서 기념행사를 했으며 올 가을 뉴욕에서 하게 됐다"고 말하고 뉴욕지역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회장은 특별히 인원동원을 강조하고 미국에서의 활동은 주로 목사, 장로들이 주도적으로 해왔으며 뉴욕과 LA에서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사무엘 목사는 "매년 450여명의 목회자들이 독도에 가서 기도하는 등 이 운동에 목회자들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행사는 △제 119주년 독

도의 날을 기리고 범국민 재외동포적 영토수호의지 고취 △일분이 독도관련 외국 활동 시청각 교육 △독도영토주권수호 관련사항 미주지역 홍보 △참여동포, 학생 독도 관심 증진 △재미동포사회 화합 발전 계기 마련 및 위상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행사에 앞서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제 5회 대한민국 독도음악제 합창 경연을 하게 된다.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8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뉴욕축제에는 성명서 낭독이 있으며, 독도플레이스, 태권도 시범, 독도뮤지컬 등이 공연된다.

한편 이 운동본부는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국제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 21일까지 10회 대회를 열었으며 전국 초중고교 및 재외 한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유원정 기자)



생명의전화 창립 21주년 기념감사예배에서 박다윗 목사가 사회를 보고있다

20년 근속 상담봉사상 이기수 상담원

생명의전화 창립 21주년 기념감사예배

생명의전화(원장 박다윗 목사) 창립 2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6월 29일 오후 5시30분 중앙루터교회(홍영환 목사)에서 열렸다.

박다윗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나정기 목사(이레교회 담임, 제7기 상담봉사원)가 대표 기도했으며 김신일 집사(제23기 상담봉사원 회장)이 성경봉독을, 남가주한인합장단(지휘 유의철)이 특별 찬양했

“비판하지 말고 덮어주는 지혜...”

CMF선교원 선교사 7월 정기모임 및 예배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 선교사 7월 정기모임 및 예배가 지난 6월 오후 5시 CMF선교원 예배실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예배는 김철민 장로 사회로

예멘선교사 김영일 선교사 기도, 신태훈 선교사(요르단)가 설교했다.

신 선교사는 '셈의 하나님'(창9:18-27)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노아의 아들 셈은 아버

지가 벌거벗고 있을 때 덮어줌으로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셈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렀다.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은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셈은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 판단하지 말고 덮어 주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셈의 하나님이 우리 모

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진 목사(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선교회)와 제프김선교사(영국)의 간증이 있은 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선교회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CMF선교회)



뉴욕교협이 뉴욕에 도착한 할렐루아대회 강사 정연철 목사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할렐루아대회 강사 정연철 목사 뉴욕도착

뉴욕교협 기자회견, 증경회장단도 초청 오찬

뉴욕교협은 지난 9일 오후 1시 뉴욕에 도착한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정연철 목사(삼양교회)와 기자회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무 이은수 목사 사회로 부회장 양민석 목사의 기도 후 회장 정순원 목사가 강사를 소개했다.

정연철 목사는 이번 대회에 강사로 초청받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성결한 삶'을 주제로 정했다고 말하고 "성결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며 "이번 할렐루아대회에는 공동체보다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성결이 이뤄짐으로 경건을 이룰 수 있다.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대회가 성공할 수 있다"며 "이민교회가 모두 각성하고 회복하는 집회

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4차 준비 기도회가 7월 2일 오전 회장 정순원 목사가 시무하는 빛과 소금교회에서 열렸으며 준비 기도회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해 대회를 위해 기도했다.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는 12일(금), 13일(토)에는 오후 7시30분부터, 14일(주일)에는 오후 5시30분부터 열린다. 목회자 세미나는 2차례 열리는 데 토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프라미스교회에서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교회 원로)가, 15일(월) 오전 8시 금강산 연회장에서는 강사 정연철 목사(삼양교회)가 조찬기도회를 겸해 38년 목회의 철학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차세대집회는 10월 11-12일 뉴욕신광교회에서 청소년 최순호를 바랄 때 대회가 성공할 수 있다"며 "이민교회가 모두 각성하고 회복하는 집회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콜롬비아 인디오 사역 집중 후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이종명 목사) 6월 정기예배가 지난 26일 쿼츠침례교회(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박이스라엘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19년 단기 선교는 가지 않고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가 추진하는 인디오 마을 선교센터 지원을 집중기로 했다.

또 △재정보고는 7월에, △후원아동 상황 상반기 보고는 이찬양 간사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8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는 박성원 목사가 맡기로 보고했다.

이날 유상열 목사는 후원아동이 종료되고(18세가 되면 후원종료) 새로운 아동을 받을 경우 후원비 납부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기도 한준희 목사, 설교 양민석 목사, 합심 기도 권캐더린 목사, 축도 박진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민석 목사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신10:13-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친구와 성경을 레일삼아 잘 따라가면 인생길이나 공동체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로 돼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현재 지구촌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 기아의 문제는 ①재분배 ②가격 ③전쟁 ④자연재해 ⑤시장부패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소개하고 "기아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

문인데, 해결책은 하나님을 믿어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전파가 물질 전달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본 궤의 '미친 운전사' 이야기를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근본적 뿌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복음 영성과 나눔영성을 잘 나누는 기아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페루(김중원 최은실),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정), 코트디부아르(김형구 이선미),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지역에 아동 109명을 후원하고 있다. 아동 1명 한달 후원비는 30달러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readngospel.org)를 참조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화요찬양모임, 랜드마커 한국팀 초청 콘서트

뉴욕화요찬양모임 시즌 2에서 초청한 랜드마커 한국팀 콘서트가 7월 2일 7시30분에 플라싱 킹도마이어 미션센터에서 열렸다.

랜드마커 미니스트리 사역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오영섭 목사(생수가 흐르는 숲교회 담임)의 인솔로 뉴욕에 도착한 미니스트리 팀은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랜드마커 찬양사역

새 회장 유병우 목사, 부회장 이의철 목사

뉴저지목사회 제10회 정기총회, 최장시간 걸려

10년의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뉴저지목사회가 지난 7월 8일 오전 11시 드림교회에서 제10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정기총회는 뉴욕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가장 오랜 시간 열려 오후 4시40분에 끝났다.

문제 배경의 핵심은 선거였다. 결국 임원선출을 통해 부회장 유병우 목사(드림교회)가 회장이 됐으며, 이의철 목사(뉴저지은혜제일교회)가 부회장에 선출됐다.

부회장 후보로 김태수 목사와 이의철 목사가 입후보 했다. 뉴저지 목사회는 총회석상에서 바로 후보를 추천한다.

회의 첫 순서인 회원점명, 회칙수정 등이 모두 부회장 선거와 관련됐다는 의심을 유발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한다는 인식아래 특정 그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임원선출에 있어 자격시비도 길게 이어졌다.

더구나 9회기 임원들이 전회의록 등 총회자료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회의진행도 미숙해 회의시간은 더욱 길어졌다.

대부분 단독후보로 20여명 정도가 참석했던 뉴저지목사회 정기총회가 이번에는 복수 후보 출마로 40명이 참석했다. 이어 회비납부 여부도 문제가 됐다.

지난해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9회기는 회칙개정안을 내



뉴저지목사회 제10회 정기총회에 마지막까지 남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놓았으나 이 또한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그룹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난상토론 끝에 결국 뉴저지교협과 같이 새 회기에서 회칙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목사회 회칙은 회장과 부회장은 △소속 교단에서 노회장 혹은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현재 담임목사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뉴저지목사회, 혹은 뉴저지교협 임신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하되 총회 전 2년 동안 회비를 납부한 자라고 돼있어 특정 후보를 위한 개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내용은 이후 임원선출에서도 문제가 됐다. 회칙 개정이 불발되고 이어진 임원선출 순서에서 부회장에 출마하려 한 김태수 목사는 "소속 교단에서 노회장 혹은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라는 회 회칙에 걸려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김태

수 목사가 자진 사퇴함으로 단독 후보가 된 이의철 목사가 부회장에 당선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제 2차 임신행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계보고, 신입회원 3명 소개

뉴욕목사회 제 2차 임신행위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가나안침성교회에서 제 2차 임신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이창종 목사 개회기도 후 박태규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행정보고(서기 박시훈 목사), 감사보고(박드보라 목사), 회계보고(김희숙 목사), 신입회원 소개, 안건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계는 수입 24,083.32달러, 지출 22,019.56달러, 잔액 2,063.76달러로 보고됐다.

신입회원은 김경길 목사(엘피스찬양교회), 이현숙 목사(뉴욕태맨교회), 김준현 목사(뉴욕청소년센터 사무총장) 등 3명이다.

회의에 앞서드린 예배는 총무 김진화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김경길 목사, 기도 김여호수야 목사(가나안침성교회),

이날 회의 진행 모습에 '목사회 해체', '교계 정치 그룹 비판'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신입회원은 김득해, 김재철, 김주동, 김희건, 박효숙, 이상일, 이수원, 이영만, 김에스터, 김경훈 목사 등 10명이 가입했으며 당일 참석자는 2명이었다.

9회기 수입은 22,674달러, 지출 20,237달러, 잔액 2,437달러로 보고했다.

박근재 목사와 윤명호 목사를 감사로 선출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드린 예배는 유병우 목사 인도로 기도 김주현 목사, 찬양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설교 박근재 목사("진실한 동역", 빌2:19-24), 축도 양춘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베이스айд장로교회 VBS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Roar! When life is Wild-God is Good!"

베이스айд장로교회 VBS 1,100여명 참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God is good!!")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한 2019 베이스айд장로교회 VBS(여름성경학교)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Roar! When life is Wild-God is Good!"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베이스айд장로교회는 "교회의 미래는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에 있다"는 일념으로 늘 교육 부서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종식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 올해도 교회의 모든 힘을 기울여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잔치를 열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3일 동안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1살 유아부터 초등부 5학년 학생들까지 약 1,100여명이 백 명이 넘는 교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유아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유아들의 특성을 살려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까지 함께 참여해 찬양과 율동, 그리고 물놀이와 여러 스테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은혜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도록 했다.

특히 유아부 담당 공영애 전도사는 3일 동안 어린 유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부서를 통합해 VBS가 진행되는 3일 동안 함께 예배 드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주제와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는 게임, 스킷 드라마,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풀어내어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했다.

유치부와 초등부의 연합 VBS를 준비한 송영순 전도사와 이은혜 전도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해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린이들이 언제나 기억하도록 마음을 다해 성경학교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더이상 교회학교의 부흥과 성장은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에 베이스айд장로교회는 VBS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온성도들이 하나됨을 경험하며 "이민 교회의 위기는 오히려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는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실현시키고 있다고 교회측은 밝혔다.

(기사제공: 베이스айд장로교회)



뉴욕새침장로교회 입당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커뮤니티에 오픈...북카페, 상담실 등

뉴욕새침장로교회 입당예배,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찬양으로

리틀넥으로 이사한 뉴욕새침장로교회(박태규 목사)가 6월 30일 오후 5시 예배당 입당예배를 드렸다.

입당예배는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을 초청, "찬양으로 드리는 입당헌당예배"로 진행됐다. 박태규 목사 인도로 기도 한 기술 목사(뉴욕할렐루교회), 경배와찬양 뉴욕밀알선교합창단, 합창 월드밀알선교합창단(지휘 이다니엘 장로), 뉴욕밀알 크리스탈 핸드벨 앙상블, 소프라노 오수현, 김신애와 송정규 기악연주, 성경봉독 김희숙 목사, 설교 송병기 목사(목양장로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송병기 목사는 "아름다운교회"(시133:1-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며 새로운 길을 가는 새침교회의 앞길을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축복했다.

이어 헌금특수 송영기 원장, 헌금기도 김진화 목사, 교회건축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근속 공로패 최호의 목사, 특순 박

태규 목사, 축사 안창의 목사, 전희수 목사와 이희선 목사, 광고 신광진 성도, 축도 정순원 목사(뉴욕교협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새침장로교회는 교회당을 커뮤니티에 오픈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며 커피와 장소를 무료로 제공한다. 미니 콘서트와 아트 전시를 위한 공간도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월, 화, 수요일에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주 1회 무료점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요일 오후 8시30분부터는 오산리금식기도원 전 원장인 박수철 목사가 인도하는 은사 집회, 치유사역, 회복집회가 진행된다.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에 예배가 있으며, 수요일 낮 11시와 화, 수, 금요일 오전 6시 새벽예배가 진행된다.

주소는 47-33 Little Neck Little Neck, NY 11362. (정리: 유원정 기자)

‘그리스도 형상인 참 자아를 찾자’

OC목사회 주최 치유세미나, 강사 권오균 목사



OC목사회 주최 치유세미나에서 강사로 참여한 권오균 목사가 강의하고있다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김근수 목사) 주최 치유세미나가 락한인교회(박정기 목사)에서 ‘그리스도 형상인 참 자아를 찾

자’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권오균 목사(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권오균 목사는 “우리는 배우자와 가장,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자신의 자아가 있어야 한다”며 “나의 진정한 자아 예수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자아를 찾았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도 분노하고 화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같이 용서하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제12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주제

제12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

제12회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퍼시픽팜스 컨퍼런스 리조트에서 열렸다. 커피브레이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리고 소그룹 사역자들을 준비시키며 서로를 격려, 연결시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되고 하나 되게 하는 목적으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요나서를 본문으로 채택했으며 각 조 별로 성경공부 인도에 대한 워크샵을 가졌다. 또한 김신규 목사(호주 브리즈번), 송병주 목사(미국 선한정지교회 담임), 조창호 장로(캐나다토론토 큰빛교회), 배선호 선교사(중국어권)를 강사로 인준하는

시간을 가졌다.

컨퍼런스의 주강사는 임현수 목사(큰빛교회 원로)가 맡았으며 개회예배와 저녁예배 말씀을 증거 했다. 그리고 아침예배 목상시간 강사로 송병주 목사, 둘째 날 오전 ‘커피브레이크 소그룹은 어떤 모임이라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백은실 집사(글로벌커피브레이크 대표)가, ‘21C 커피브레이크 사역방향’이라는 주제로 윤원환 목사(피닉스장로교회 담임)가 강의했다.

이외에 영어권 커피브레이크 강사로 최효석 전도사(아름다운교회)가 어린이 커피브레이크 강사로 여병현 목사와 이옥희 전도사(이상 어린이전도협회)가 참여했다.

(박준호 기자)



2019 밀알서부지단 연합 사랑의 캠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Ohana in Christ” 주제

2019 밀알서부지단 연합 사랑의 캠프

2019년도 밀알 서부지단 연합 사랑의 캠프가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칼스테이트 롱비치 캠퍼스(CSU Long Beach)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남가주와 북가주, 캐나다 밴쿠버에서 모인 약 400여명의 장애인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 스태프 등이 CSU 롱비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함께 어울려 예배를 드리고 식사 및 교제를 나누며 여러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이번 캠프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Ohana in Christ”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Ohana”는 하와이 현지어로 ‘Family’란 뜻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가족”이란 의미다. 이번 사랑의 캠프 티셔츠와 프로그램 역시 하와이언 컨셉으로 제작되고 진행됐다.

이종희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은 “캠프가 열리는 동안 성찬과 세례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한가족임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으며

여러 액티비티를 통해 재미있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봉사자 200여명이 헌신적으로 섬겼다.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캠프 첫날은 CSU 롱비치에 도착해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 미주밀알선교단 이사장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거행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참가자들을 성인 팀과 아동팀으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Milal Got Talent’ 등의 장기자랑, 교제 등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저녁에는 화려한 장식의 꾸며진 토크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댄스파티를 하고 멋진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마지막 날은 팀별 공연과 기도회와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 폐회예배를 끝으로 2019년도 사랑의 캠프가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FACE 사모님들을 위한 빛의 향연 주제로 사모위로행사를 연다

‘사모들을 위한 빛의 향연’

FACE, 24일 사모 위로행사 연다

FACE(대표 임혜빈)는 ‘사모들을 위한 빛의 향연’이란 주제로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벨라스코 극장에서 개최한다.

임혜빈 회장은 “교회에서 묵묵히 사역에 동참하며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목회자 사모님들이 빛나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모님들을 위한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사모님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혜빈 회장 등 FACE 관계자들은 세크라멘토에서 열렸던 계인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취임식과 종교지도자들을 위한 기도회에서 계인뉴섬 주지사의 부인인 제니퍼뉴섬 여사에게 한인교회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리고 참석여부를 타진했고 뉴섬 여사는 흔쾌히 참석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박종대 목사는 “FACE 초청으로 제니퍼가 오게 됐다. 사모님들에게 좋은 격려의 시간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사인 샘신 목사는 “사모님

권 목사는 “우리는 주님과 관계 속에 존재하며 가지로서 연합된 가운데 진정한 치유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삶속에서 언어나 육체적으로 학대받은 자는 부정적 인식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한다”며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진정한 내가 돼야 하고 사역도 진정한 나를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의 깊이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훌륭한 인격은 사람이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비영리단체 설립, 텍스신청 무료 공개강좌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설립 및 IRS Tax Exempt 신청 관련 무료 공개강좌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17일(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그레이스미션대학(GMU)의 LA 강의실(3020 Wilshire Blvd #175)에서 개최한다. 본 무료 강좌는 특별히 LA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심이 있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LA 확장강의실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제임스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

▲문의: (714)525-0088(본교), admissions@gm.edu

LA 챔버 콰이어 공연

LA 챔버 콰이어(지휘 이정욱 집사) 공연이 14일(주일) 오후 7시 St. Thomas Catholic Center(412 N Crescent Way, Anaheim, CA)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UCT-KCC(그날까지 선교 연합)의 탈북자 사역 지원 모금을 위한 공연으로 갖게 된다.

▲문의: (213)249-5950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음악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개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변화하는 시대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라는 주제로 16일(화) 오후 7시30분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갖는다.

▲문의: (213)388-1000

2019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2019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요10:11)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폴 퍼거슨 박사 901 E. Alosta Ave, Azusa, CA)에서 열린다. GMT(Global Media & IT 대표 켈안 선교사)가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 가나공방 대표 김성환 목사(장세기),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백정우 목사(룻기), 유니온교회 담임 김신일 목사(12 소선지서), 토론토조은교회 담임 김우준 목사(요한일서), 시드니 담임 권혁민 목사(요한계시록).

▲문의: (310)702-2688

휠체어 사랑이야기

살롱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주최하는 제 16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연주회가 오는 14일(주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자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회에는 LA 남성선교합창단, SCDC 수화찬양팀, SDM찬양팀 등이 출연하고 소프라노 이영주 씨, 또 배우는 씨가 특별출연한다.

▲문의: (323)731-7724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동페라 예술단 공연에서 출연자와 관객들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평생 못잊을 장애인들의 자연스런 연기...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동페라예술단’ 공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한인사회에 남의 ‘다름’을 새롭게 보여주려고 한국 수원에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동페라 예술단’(대표 고명진 목사)이 처음으로 미국 여행에 나서 지난 6월 29일 오후 6시 LA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가졌다.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동페라 예술단’의 공연은 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각색해 만든 뮤지컬에 가까운 무대였다. 공연에 참여한 단원 모두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의 연기는 장애인의 연극라 생각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움이 연출됐다. 작은 학예회가 연상됐지만 파스함이 전달된 무대였다.

동페라 예술단 대표이자 수원중앙복지재단 대표이사인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는 “동페라예술단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산하 10개 복지단체 중 하나”라며 “동페라라는 동화와 오페라를 접목한 예술 공연으로 비정규 교과과정을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로 단원들이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고 목사는 “이번 공연과 미국여행으로 단원들에게 희망

과 사랑으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에 앞서 찬조출연자의 무대가 있었다. 동페라예술단 단원들과 같은 또래의 장애인으로 LA에서 구성된 장애인 오케스트라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This Ability Orchestra)가 찬조출연해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향의 봄’ 등 8곡을 연주해 열띤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 오케스트라가 ‘공화국전투찬가’(Battle Hymns of the Republic)와 ‘성자의 행진’(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을 연주할 때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함께 흥겨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폐장애찬양사역자 마가렛 리 자매가 ‘나의 어머니’(Mother of Mine)를 한글과 영어로 힘껏 불러 장내에서는 또 다시 박수와 ‘앵콜’이 쏟아졌다.

이날 공연은 동페라 예술단과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가 청중들과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함께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성성결교회 창립 49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에서 임직받은자들과 배우자들이 담임목사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로장립 2명 집사안수 3명 등 총명

나성성결교회 설립49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

나성성결교회(구영모 목사) 설립 49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가 지난 6월 2일 오후 4시 성황리에 열렸다.

구영모 목사 인도로 시작된 임직예식은 원로장로와 명예장로 추대, 장로장립, 집사안수 순으로 진행됐다.

원로장로로 유문근 장로가, 명예장로로 조승호 장로가 추대됐으며 신한승 집사와 이태성 집사가 장로로 장립됐다. 그리고 김스티브, 최광희, 진영찬 씨가 집사안수를 받았다.

이어 최경환 목사(전 총회장)가 축사와 권면했으며 신한승 장로가 답사를 했으며 이날

모인 청중들이 축가를 함께 불렀다.

이날 임직감사예배는 송중복 목사(전총회장) 축도로 마쳤다.

한편 임직예식이 열리기 전에 가진 임직감사예배는 구영모 목사 인도로 시작, 최은호 장로(LA지방회 회계)가 기도했으며 김덕수 목사(LA지방회 부서기)가 성경봉독 했으며 나성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한천영 목사(LA지방회장)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엡4: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모바일 크리스천’ 이 는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분석,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도 모바일이 대체다. 스마트폰 예배 및 설교 이용률이 급증했다.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고 모바일로 설교를 듣고 모바일로 교제하는 모바일 크리스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는 26일 ‘모바일 시대가 온다!’란 제목의 주간 리포트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결과의 재분석해 기독교(개신교)인의 인터넷 모바일 이용률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예배나 설교를 들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 44%가 ‘있다’고 답했다. 2012년 같은 조사에서 28%에 머물던 응답이 5년 새 16% 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같은 조

사에서 기독교인을 상대로 ‘일주일간 접촉한 신앙 매체’를 묻는 항목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는 2012년 3%에서 2017년 17%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한국교회와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로 ‘인터넷’(뉴스, 포털, 토론방 등)을 꼽은 이는 23%였다. 이는 ‘가족, 친구나 이웃’ 35%, ‘TV 신문 등 언론 매체’ 25%보다 낮은 순위이지만, 2012년 인터넷을 꼽은 응답이 5%에 머물렀던 점과 견주면 18% 포인트나 늘어난 결과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교회 탐구센터가 조사한 ‘가나안 성도 신앙의식 및 생활조사’ 결과도 신앙의식 및 생활조사 결과도 재인용했다. 기독교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명 ‘가나안 교인’의 경우 온라인·모바일 예배 경험률은 20%였으며 향후 온라인·모바일 예

배 의향률은 26%로 나왔다. 4명 중 1명꼴로 손안의 스마트폰 예배 의향을 보인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언론재단의 201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도 인용해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2011년 37%에서 2018년 87%로 2.4배 증가하면서 TV 이용률 93%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추세대로면 2020년에는 모바일 이용률이 TV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은 한국사회 모바일 미디어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사실에 입각한 가치 중립적 자료 제공을 목표로 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돕는 ‘팩트 탱크(Fact Tank)’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달 출범했다. 지용근 대표는 “추가로 조사비용이 마련되면 한국의 기독교 인덱스를 분기별로 발표하는 등 미국의 크리스천 조사기관인 퓨(Pew)리서치처럼 발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결사 반대”

예장합신, 인권위 규탄 집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장 홍동필)은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

임을 규탄했다.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 서기 김선우 목사는 “동성애 반대는 혐오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 문제이며 이를 막는 차별금

지법을 인권위가 제정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예장합신은 이 외에 급진적 인권 및 성 정책의 폐기, 낙태법 찬성 및 양심적 병역 거부 지지 철회,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인권위의 견해 표명을 요구했다.

“한반도평화 소중한 가치 전 세계에 전파”

한교연, 남북미 정상 만남, 관련 논평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남북미 정상 만남과 관련해 1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연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미국 현직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음으로써 한반도 분단 현실을 알리고 평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 무산 이후 경색에 빠질 수도 있었던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새롭게 트게 했다”며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남북 당국자 간의 실질적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만남이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평화통일을 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연도 전했다. 한교연은 “남북미 정상 만남이 훗날 세계 역사에 빛나는 유산으로 기록되려면 제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폐기 및 인권에 대한 가시적인 합의가 반드시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통한 힘의 우위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공조, 온 국민의 단합이 자유평화통일의 필수요소라는 것을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가 명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교회는 북한의 자유와 인권, 복음 통일,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와 신앙의 자유, 약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3다(多)’ 제주는 이제 복음까지 ‘4다(多)’

복음의전함, 제주 캠페인 완료

“30, 60, 463, 3000, 2만5000, 68만2000” 지난달 30일간 제주도를 복음으로 물들였던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이 숫자로 남긴 흔적이다. (사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과 제주성시화운동(대표회장 박명일 목사), 제주의 성도들이 복음광고를 중심에 두고 힘을 모은 결과는 놀라웠다.

지난달 1일과 2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잇달아 진행된 제주복음화전도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지를 들고 거리전도에 나섰다. 19일과 29일에는 ‘한 영혼 구원(19)’ 두 영혼 구원(29)이란 주제를 걸고 교회 인근과 도심에서 연합전도가 이어졌다. 8차례 열린 거리전도에 참여한 성도는 모두 3000여명이었다. 제주 성도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제주복음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이다. 여기서 배포된 전도지만 68만 2000장이었다.

도로에서 복음광고를 부착한 60대의 시내버스가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실어 날랐다. 광고비는 지역 성도들이 자체 모금했다. 복음의전함이 배포한 복음광고 스티커(2만5000장)를 붙인 차량들도 버스와 함께 도로위를 달렸다.

거리를 걸을 때도, 차량을 타고 도로를 지날 때도 눈에 익은 연예인들의 얼굴과 ‘괜찮아’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에 시선이 쏠렸다. 복음의전함이 제주도 463개 교회에 전달한 가로세로 3m짜리 복음광고 현수막이었다. 교회의 외벽은 옥외광고판

이 됐다.

지난 29일 제주중앙감리교회(박종호 목사)에서는 한 달 동안 한마음으로 제주복음화를 외쳤던 성도들이 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종호(제주성시화운동 고문) 목사는 “제주는 더 이상 ‘척박한 땅’ ‘선교의 불모지’가 아니라 연간 194만여명이 제주공항을 통해 왕래하는 ‘축복의 땅’이며 복음을 위한 기회의 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복음화율 10%만 기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90%를 위해 자신이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열심히 달려온 지난 한 달을 마음에 새기자”고 권면했다.

정종열(제주성시화운동 서기) 목사는 “교회 정문에 가수 엄정화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한 복음광고를 걸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교회를 지나는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복음광고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전도 도구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복음광고는 전도 도구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평화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가 안고 있던 상처를 보듬는 치유제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류덕중(제주 대성교회) 목사는 “제주는 삼별초의 난, 이재수의 난, 4·3 사건 등 아픔과 질곡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복음광고를 매개로 상처 입은 자와 상처를 준 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한마음으로 복음만 떠올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대정

교회 앞마당엔 4·3사건 당시 순교한 이도종 목사의 묘소가 있다. 류 목사는 “제주 성도들이 지난해 6월 ‘엑스플로(EXPLO) 제주선교대회’를 통해 있고 있었던 복음의 열망을 되살렸다면 지난해엔 그 열망의 씨앗을 제주 전역에 뿌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명일(제주성시화운동 대표회장) 목사는 “복음광고 전도지를 든 성도가 위로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메시지의 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전도지와 옥외 복음광고에 적힌 ‘괜찮아’라는 문구가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해 줬다”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도들이 거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함께 위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부산) 호남(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제주도의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은 2020년 2월 4차 지역인 강원도(춘천)로 이어질 예정이다. 류정길(제주성시화운동 기획위원장) 목사는 “제주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전도에 임했다”면서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 전 세계에 까지 복음광고가 전달될 수 있길 소망한다”며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고정민 이사장은 “제주에서 진행된 한 달간의 복음광고 캠페인은 마무리되지만, 복음의 물결은 더 거세게 일어나리라 기대한다”며 “복음의전함은 ‘6대주 광고선교캠페인’의 5번째 대륙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상파울루(10월)를 향해 항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가짜 인권, 국가 안보 해친다”

동반연, 동성애 금지조항폐지추진인권위 규탄

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은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앞에서 군 동성애 금지 조항(군형법 추행죄 92조의 6) 폐지를 추진 중인 인권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결사반대”

라고 써진 팻말을 들었다.

김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군 장병들이 군대에서 동성애를 접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한국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퍼질 것”이라면서 “남성 간 성관위를 규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인주 의원에 집회에

참석해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져도 상관없다는 것이 인권인가”라고 반문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것은 역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인 임천영 바른군인권연구소 공동대표는 “정부는 군 인권 보호관 제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군에 가입하면 군 사법집서와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 성료

‘교수선교사’ 파송 MOU 체결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회장 이선복교수·동서대)는 27-29일 충남대 백마홀에서 제34회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사 6:8)’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충남대 오덕성 총장을 대회장으로 전국에서 400명의 기독교수가 모여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교수선교사 파송 MOU 체결과 더불어 국가와 민족 및 복음통일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가 살아야 대학이 살고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의 개회예배 메시지를 시작으로 세계선교 현황과 전략(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꿈꾸는 신앙과 비전있는 교회(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젊은 세대 복음화 전략(박성민 목사·CCC), 거룩한 대한민국(최상일 목사·홀리워크 미니스트리), 사명과 능력(김상길 목사·대전순복음교회) 등 다음세대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됐다.

대구 동성로 가족사랑 콘서트

퀴어행사 맞서…시민 ‘생명’ 기치 들어

대구퀴어행사에 맞서 생명의 가치를 전하기 위한 ‘동성로 사랑, 가족사랑 콘서트’가 29일 대구 중구 국제보개기념공원과 동성로 일대에서 개최됐다. 비가 쏟아지는 곳은 날씨에도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가정 가치 수호를 외쳤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성림 한국기독교사회회장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32만7120명인데, 이는 18년 뒤 수능 응시자 수가 지금의 60만명에서 반 토막이 난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은 80조원을 투입하고도 신생아 30만명이라는 마지노선이 붕괴할 위기에 있으며, 대구·경북의 인구감소율은 35.8%로 전국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을 장려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사를 대구에서 허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행사를 주최한 경산 휴먼브리지 대표 김종원 경산중앙교회 목사는 “퀴어행사를 앞두고 대구중부경찰관들은 지난달 퀴어행사준비위원장에게 교육까지 받았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치인과 관련 때문에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다음세대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100번 1000번을 서명하고 길거리에 앉더라도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경찰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박병욱 김기환 목사 등은 “탈출하세요, 동성애로부터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주변 보호 차원에서 동성로 주변 상점을 이용했다.”

이날 대구퀴어 측은 대구중

구청에 사용 신청도 하지 않고 중앙대로 500m 구간을 무단 사용했다. 동성애자 에이즈예방센터(아이샵),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등은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에 부스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지난달 대구 퀴어행사준비위원장에게 인권 교육을 받은 대구경찰은 퀴어행사장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관계자는 “대구 심장부를 무단 점거한 동성애자들은 14개 노선버스 240대의 이동경로까지 변경시켰다”면서 “이런 막강한 힘을 지닌 권력 집단을 소수자라고 불려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지켜본 김유지(20·여)씨는 “동성애자들은 스스로 피해자 소수자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행사를 보니 약자도 아니었고 행사도 성박탈회를 방불케 했다”면서 “내년부터는 민폐를 그만 끼치고 실내에서 행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김영길 한동대 초대총장 별세, 향년 81세

김영길(사진) 한동대 초대총장이 30일 오전 3시쯤 별세했다. 향년 81세. 김 전 총장은 지난 5월부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유가족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나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하는 말을 남겼다.

1939년 10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김 전 총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금속공학석사, 뉴욕 렌셀러폴리테크닉대(RPI)에서 재료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 루이스연구소와 뉴욕 인코(INCO) 중앙연구소를 거쳐 197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료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과학기술처 첫 특성화 과제로 풍산금속

과 협력해 반도체 리드프레임 ‘PMC-102’ 합금을 발명했다. 이 제조기술은 독일에 수출해 건국 이래 ‘한국기술 선진국 수출 제1호’의 기록을 남겼다.

김 전 총장은 아내에게 기독교를 소개받은 후 성경을 깊이 읽으며 회심, 이른바 ‘신트로피 법칙’에 따라 기독교 신자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추구해 왔다. 신트로피는 엔트로피의 반대 개념으로 생명과 회복을 의미한다. 미국 인코중앙연구소 시절부터 기도모임을 가졌고 귀국 후인 81년 1월 한국창조과학회를 발족했으며 서울 은누리교회 초대장로를 지냈다.

95년 한동대 초대 총장에 취임해 혁신적 커리큘럼과 기독교 정신 기반의 인성교육이란 실험을 통해 교육중심대학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무감독 양심 시험제도, 무전공 무학과 입학 및 복수 학위 제도,

전교생 생활관 입소, 영어 수업 등 과격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공부의 목적은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와이 낫 체인지 더 월드?’(Why not change the world?) ‘공부해서 남주자’ 등의 슬로건을 제시했다.

19년간 한동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잇단 고소·고발로 재판 받고 53일간 옥고를 치렀다. 김 전 총장은 고난에 대해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인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를 인용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온도에 맞는 불시험을 겪거나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유엔아카데미 펙트 한국협의회장을 맡아왔으며 국민훈장 동백장, 세종문화상, 올해의 과학자상,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교육자부문, 한국기독교 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1976년과 1981년 두 차례 나사가 수여하는 발명상을 받았다.

교토소 선교칼럼 (57)



이영희 목사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작은 계획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상)

다음 설교는 “최고의 성인들은 작은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온 나의 설교이다.

1차 세계대전 후 시카고 템플의 제일연합감리교회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타운 밖으로 이사했고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몇몇 교인들은 교회건물을 팔고 교외로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개중에는 비전과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천 명이 앉을 수 있는 더 큰 예배당과 아름다운 건축양식으로 지은 26층짜리 건물이라는 큰 비전을 교인들에게 심어주었다.

대니얼 변함이라는 건축가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작은 계획들은 세우지 마십시오... 큰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희망을 품고 높이 겨냥하시고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운 상전이 되도록 하십시오...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의 교회 프로젝트를 향한 꿈은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교회건물은 1952년 부활절 아침에 봉헌되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카고 템플을 방문하기 위해 순례를 한다. 나는 이 교회를 방문하는 특권을 누렸고 예배당과 교회건물의 아름다운 건축양식에서 감명을 받았다.

새로운 교회가 건축되고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인구가 늘어나서 이 교회의 등록교인과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 교회는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선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술 사역도 개발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꾸었던 큰 꿈과 비전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영적인 교훈을 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큰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그 계획을 추진할 때 비로소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큰 계획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우리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큰 계획들을 세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우리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큰 계획들을 세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다낭신장병

신장에 물혹이 많이 생기는 병

어떤 질병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어떤 질병은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질병들이 과거보다 조금씩 발견되는 추세다. 이런 병의 원인을 파악하면 이를 예방하고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다.

-60세 중반의 남성 임 씨는 3년 전 심한 피로감과 구토감으로 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임 씨는 자신의 신장이 더 이상 피를 정상적으로 걸러 주지 않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또 정밀 검사상 신장에 물혹들이 많이 생기는 질환인 다낭신장병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에게 유전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의사한테서 들었다. 이때부터 임 씨는 혈액 투석을 시작했다.

40대 초반인 임 씨의 딸은 최근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그때 조기검진 목적으로 신장 초음파검사를 받고 자신도 다낭신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신장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몹시 궁금했다.

다낭신장병(polycystic kidney disease)이란 신장에 여러 물혹들이 자라면서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방해하는 질병을 말한다. 주로 여성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흔한데 약 400-1,000명 중 1명꼴로 발견되는 꽤 흔한 질환이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신부전증으로 주로 중년 이후에 문제를 일으킨다. 통계를 보면 40세 이하에서는 2%에서 혈액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증을 유발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신부전증이 올 가능성이 많은가? 다낭신장병이 진단된 나이가 어릴수록 신부전증 위험이 크고, 남성에게서 그 진행이 빠르다. 다낭신장병 환자도 유전자 결합 위치에 따라 PKD1형과 PKD2형로 나누어지는데 PKD1형이 PKD2형보다 예후가 나쁘다.

다낭신장병의 증상은 고혈압, 잦은 신장 감염, 혈뇨 등이며, 요도 계통에 돌이 생기거나 옆구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10% 정도는 뇌 동맥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낭신장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뇌혈관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낭종은 간에도 생길 수 있고, 심장 밸브나 대장에도 혹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다낭신장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초음파 등을 통해서 물혹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의 목표는 신부전증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다낭신장병 환자에게 고혈압이 생기면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혈압 조절이 신장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어줄 뿐 아니라 뇌 동맥류가 터지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또 식이요법, 특히 저단백 식사가 신장 질환의 진행에 일정한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일단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말기 신부전증에 이르면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

yonghui.mcdonald@gmail.com

본지 주최 세미나

(1면에서 계속)

한국어 모음, 자음, 호흡에 대해 설명하고 음성은 입에서 소리는 성대에서 나오는데 사람마다 음성이 있다고 말하며(개소리, 개음성이 아님) 문화의 언어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성대에서의 소리가 만들어질 때 최소한의 tension과 breath로 하며 후두음 O, U, A는 호흡이 많이

나오면 안된다고 말하고 △발동부-호흡, 호흡기관 △발성부-성대, vocal cords △발음부-후두, 입, 공명통 등 발성기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목사는 발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이라며 매일 20분씩 연습하면 프로 못지않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흡법은 복식호흡(여), 가슴소리(남), 움직임은 공기 등을 설명하며 하품이나 웃음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또 소리 만드는 연습으로 △성대(근육, 소리로 마시지, 스프레이, vocal cords △발음부-후두, 목의 악기, 힘조절, 집중), △횡격막과 가슴, 복부의 작용 △소리는 호흡으로 컨트롤(복화술, 볼펜물기) 등을 설명하고 발음연습에 들어가 모음과 자음 Modification, Imagination, Speaking and Singing을 연습했다.

김 목사는 작고 정제된 소리로 말하기, 느끼는 대로 말이 되어지는 연습을 하라며 감정과 테크닉은 상호적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소리에 빠지지 말라, 소리를 주기보다 다가오게 하라 등의 조언을 했다. 또 각자의 목소리는 나만이 갖고 있는 목소리로 평소 좋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했다.

김도마스 목사는 현재 서울 CCM(그리스도중심선교교회) 담임으로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된 교인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명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cusa@yahoo.com / www.lafc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태극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남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명예)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뚝목성(월-금): 오전 5:30 토요일영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레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명예)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요일-토)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5 2424인오르 Tel. (714)446-6200, www.graceml.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명예)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5:30(월-토) 생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명예)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c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li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9:45(101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enceg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필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아메리카지역 헌장의 구조변화와 중남미지역 선교의 새로운 모델 개발(4)

강성철 선교사

(아메리카 지역선교전략연구소)



9)볼리비아 지부
볼리비아는 왼쪽으로 페루와 칠레, 위쪽과 오른쪽으로 브라질, 아래쪽으로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이다. 그래서 남미의 중앙에 위치한 나라이다. 볼리비아 서쪽은 안데스산맥의 영향으로 고원지대(라파스, 오루로, 포토시주) 이어서 온난 건조한 온대성기후이고, 동쪽과 위쪽은 아마존 강 상류(위쪽/판도와 베니주)와 아마존 강과 인접해(동쪽/산타크루즈)있어서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볼리비아는 볼리비아 공화국에서 볼리비아 다민족국(2009년 헌법개정)으로 바뀌었다. 약 36-38개 부족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규모의 부족이 주로 라파즈 중심 고원지역 아이마라족(잉카제국 이전부터 살고 있던 부족)과 주로 코차밤바지역의 케추아족(잉카제국의 후손들)이 있으며 그들은 자체 언어를 가지고 있으나 스페인이 점령하고 통치했기에 공용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의 통치 영향으로 문화 가운데 스페인(유럽)의 영향과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문화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현 대통령(에보 모랄레스/아이마라족이며 원주민 최초 대통령/좌파성향)의 영향으로 카톨릭과 대립하는 토속종교와 토속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는 상황이다

△종교의 자유 2(1-10) △전도인구 99.7% 미전도인구 24,406명(0.3%) △기독교인의 안전도 75(1-199) 순교자 902명 △연간교회 성장률 1.7% 연간 새신자 증가율 3.1% △선교현황 7(1-7) △성경번역 현황, 전체 4/신약 16/부분 9/진행 7 △무신론자: 친러 공산당과 친중 공산당, 트로츠키계의 혁명노동당이 있다. 1967년 이후로 불법화 되었으며 모두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바하이교인: 1956년 창설된 후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예외적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1964년 91개의 지역에서 1973년에 625개로 증가하였다. 1970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무려 6천명이나 새로 등록함으로 절정을 이루었다가 1996년 지역영적 모임은 237개로 축소되었는데 더 넓은 지역을 관할하도록 재조정된 것이 큰 이유였다. △불교인: 산타 크루즈지역의 일본인 이주민들로 1960년경에 이르러 60%가 카톨릭으로 개종하였다. △토속신앙인: 99,800개의 부족 중에서 정령숭배는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새종교주의자: 일본 소카 가카이는 약 350명의 개종자들을 얻었으며 그밖에 일본에서 들어온 새로운 종교들이 있다. △영접주의자: 대부분이 최근에 들어 상류층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2019, 아메리카지역 선교백서 p. 84).

10)파라과이 지부
파라과이는 남미에 중앙에 위치한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로 북쪽에 브라질, 남쪽에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처잡했던 3중 동맹전쟁(1865-1870년)으로 파라과이는 당시 성인 남성의 3분의2를 잃었고 결과 다음 반세기동안 경제적으로 침체되었다.

1932-35년 차코전쟁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볼리비아로부터 얻어내었다. 35년간 군부독재는 1989년에 무너지고 그 이후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주요산업은 정육업과 야채, 기름제조업, 섬유업이다

△종교의 자유(1-19) △전도인구 99.8% 미전도인구 10,063명(0.2%) △기독교인의 안전도 53(1-100) 순교자 0명 △연간교회 성장률 2.6% 연간 새신자 증가율 2.1% △선교현황 6(1-7) △성경번역 현황, 전체 5/신약 6/부분 5/진행 6 △로마카톨릭교인: 많은 기독교-이교적 아메리카 원주민은 민속카톨릭과 17세기 스페인 카톨릭, 자신들의 전통적 정령숭배, 가치관, 세계관들을 혼합한 종교를 갖고 있다. △무신론자: 파라과이 공산당(불법, 탄압됨)과 그 분파들, 많은 이들이 로마카톨릭교인으로 남아 있으며 그 중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바하이교인: 1964년 3개의 지역영적모임에서 1973년 14개로 증가하였다. 많은 개종자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다(아나이구아, 출루피, 마카). △불교인: 일본인들과 한국이주민들이 있다 △신종교인: 1995년에 일본 소카 가카이 개종자들이 2천5백명이 있었다. △토속신앙인 8만명이 저지대 아메리카 원주민들(6개의 언어 그룹 및 198개 부족) 중 많은 부분이 정령숭배를 하고 있다(2019, 아메리카지역 선교백서 p. 90).

11)아르헨티나 지부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나라로 대략 유럽의 4분의 1정도 크기이다. 거대한 뿔 모양으로 생긴

이 나라는 남미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적으로 그 문화에 있어서 최고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 나라이며 인구의 대부분이 스페인이며 카톨릭 교인이다. 1816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아르헨티나는 보수진영과 자유진영, 그리고 민간인과 군부세력 간에 정치적 충돌 상황으로 인한 내부의 혼란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페론의 장기 독재는 1976년 쿠데타와 군부정권으로 이어졌다. 민주정권은 1983년 다시 세워졌고 이어진 4번의 자유선거는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있다.

△종교의 자유 7(1-10) △전도인구 99.3% 미전도인구 242,999명(0.7%) △기독교인의 안전도 56(1-100) 순교자 12,035명 △연간교회 성장률 2.1% 연간 새신자 증가율 2.0% △선교현황 6(1-7) △성경번역 현황, 전체 3/신약 7/부분 4 △로마카톨릭교인: 여기에는 약20만 가량이 그리스도파간인 아메리카 원주민이 포함되는데 그들은 17세기 스페인 카톨릭과 민간 카톨릭,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적인 정령숭배, 세계관들을 혼합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영접주의자: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나오면 많은 자들이 매해 영접주의자들이 되고 있다. 1995년에 이르러서는 심령술(강시술)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 △무슬림: 팔레스타인과 그 외 아랍이주민들 △무신론자: 아르헨티나 공산당(친러주의로 1966년 불법화 됨) 몇몇 우루과이와 유럽 이주자들로 구성된 당들 △바하이 교단: 1964년 6개의 지역 영적모임이 1973년 38개로 늘어났다. 치리구아노, 마푸체, 마타코, 테웰체, 토바 등 인디언 부족들로부터 개종자들이 나왔다. △불교인: 일본, 라오스, 중국 이주민들과 500명의 중국인 △유대교인: 78%가 아슈케나지이고 22% 정도가 세파르디이다. △토속신앙인: 1995년에 파라과이 국경에 거주하는 저지대 아메리카 원주민 10만 부족들은 대부분 무속신앙을 갖고 있거나 정령숭배를 하고 있었다. 이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족들로는 차체, 추루피, 모코비가 있다. 구아라니 무당들은 특별히 이 사회에서 치유하는 자로 존경받고 있으며 구아라니 신비주의는 이들의 사회적 단결의 역할을 하고 있다(2019, 아메리카지역 선교백서 p. 95).

kangsungchuel@gmail.com

해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4)

김토마스 목사
(서울 CCM교회 담임)



3. 발음부

후두와 입과 공명통입니다.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져서 모음과 자음이 결합되어 음성학적인 진행(Phonetic Process)을 거쳐서 음성으로 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명통에서 증폭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나 성대나 모든 기관들이 합력을 하는데 결국은 공명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명이 음성에 볼륨(Volume)을 주고 좋은 질(Quality) 그리고 큰소리(Loudness)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 힘으로 큰 소리와 질 좋은 음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명을 통해서 그러한 음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명된 소리는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목소리(Pleasing Voice)입니다.

좋은 소리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나 하면 바로 공명된 소리나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공명된 소리 안에 영(Spirit)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성기관을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말은 공명이 거의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불어나 이태리어를 들어보면 말 자체로 기분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말을 위한 디션(Diction)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모국어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따로 말하는 법이나 발음하는 법을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들은 발음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공명된 소리 안에 영이 있도록 발성기관 만드셔서
발성법은 발음법... 한국말 디션으로 자연스런 테크닉 배우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션(Diction)입니다.

한국말은 아직 디션책이 없습니다. 영어도 디션책이 없었는데 제가 줄리아드에서 공부할 때야 비로소 디션책을 쓰기 위한 자료들로 공부를 하고 그 선생님이 아주 완벽한 디션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Singing and Communicating in English(Kathryn LaBouff)입니다. 그 당시 줄리아드에는 세계적인 불어, 이태리어, 독일어 디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받으며 영어 디션책을 완성하였습니다. 발성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발음법입니다. 발음을 조정해서 매끄럽고 듣기 좋게 소리를 만들고 또 호흡이나 모든 기관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들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음은 목소리가 피곤하지 않게 그리고 호흡이나 긴장감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Modification)을 시켜야 합니다. 모음과 자음을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사용하여 목에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평상시 습관적으로 해오던 말을 멈추고 새로운 말을 해야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배우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을 바른 방법으로 해서 설교나 노래를 할 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벨칸도 발성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테크닉에 의한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물 같은 약기를 잘 사용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낙담한 자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소리를 연구하면서 목소리가 가진 혁명적이고 신비스러운 능력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약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영어로 보는 성경 (25)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Isaiah 53:5, 6

5)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6)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NIV 2011)

WORD & IDIOM

* pierce: 찌르다 * transgression: 허물 * crush: 짓밟다 * iniquity: 죄악 * punishment: 형벌 * wound: 상처, 부상 * heal: 치유하다 * go astray: 길을 잃다, 타락하다 * laid: lay(놓다)의 p. pp * lay ~ on A: A에게 ~를 부과하다

GRAMMAR

5)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그러나 그는 찢혔다 우리의 허물 위하여(때문에)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짓밟히셨다 →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림을 당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짓밟힘을 당하셨다;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또한:(:) 그 형벌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그에게 놓였다,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그리고 그의 상처들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 →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그 형벌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이 문장은 2형식(S+V)의 문장이다. 즉 주어가 <the punishment>이며 동사는 <was>이다. 이 경우의 <be>동사는 <있다, 존재하다>의 뜻을 갖는다. <on him>은 <전치사+명사>로 된 수식어구이다. <that brought us peace>는 관계사절로서 <the punishment>가 어떤 형벌인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서 <that>은 <The punishment>를 가리키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6)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우리 개개인 우리자신의 길로 돌아섰다 → 우리 모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며, 우리 각자는 각각 자신의 길로 돌아섰다;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그러나 주께서 지게 하였던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 →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 ,like sheep, 은 삼입구로서 <We all>를 수식한다. 이 경우 관계사절에서 관계대명사와 동사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We all, that are like sheep, have gone astray>에서 <that are>가 생략된 것이다. * <have gone astray> 와 <has turned>는 현재완료형으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이 문맥에서 <and> 는 <그러나> 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은 <the iniquity of us all>을 ()안에 넣어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STUDY & THOUGH

■ 5절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 받는 종(메시아)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이며 가장 길고 아름다운 노래인 52:13-53:12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이며 이 절에 나오는 평화가 핵심 주제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찢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통해서만 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다(6절).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잔인한 정복자의 영광이 아니라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이룩한 순결한 영광이다.

■ Be thankful and meditate deeply on the love of God that gave us this grace!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jameshur63@hotmail.com

월 믿음이란 무엇인가?(히11:1-2)찬343장

구약에 여호와와의 경외심과 신약에 표현된 믿음을 히브리어 기자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첫째, 그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1). 바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 실체를 소유한 것이기에 확신을 가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목상이나 수련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엡1:13). 실체를 알고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산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둘째, 보

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1). 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령한 복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로 나아가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그 증거를 갖기에 큰 확신을 가집니다. 셋째, 선진들은 그 믿음의 증거를 가졌습니까(2).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화 창조를 믿는 믿음(히11:3)찬344장

진화론 사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어떤 창조입니까?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삼위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말씀자체로 창조의 유일한 수단이시고, 성령은 그 말씀을 적용해 만물을 만드신 것은 최대의 사건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의 창조입니다. 그의 말은 그 자신의 권위를 가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마다 현실화했습니다. 그 창조의 말씀이 인간이 되심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말씀이 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는 한 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시19:). 셋째,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 공허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수 믿음의 참예배(히11:4)찬9장

본문은 아벨과 가인을 비교함으로써 참 예배의 방법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가인은 참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결여됨에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지 않은 예배였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는 자신을 산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벨은 참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아벨의 더 나은 제사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란 뜻입니다. 가인과 달리 그는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

믿음은 아담으로부터 배운 피흘리는 예배를 드렸고 자신을 완전히 산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셋째,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무참히 살해당했으나 죽어도 하나님의 산중언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리에 나아간 최초의 순교자가 돼 영원히 그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히11:5-6)찬139장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나요? 첫째,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 죽을 없이 들리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신자는 에녹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받

았습니다. 둘째,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6). 동시에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수고에 반드시 상이 따름을 에녹의 생애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전심전력합니다.

금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히11:7)찬40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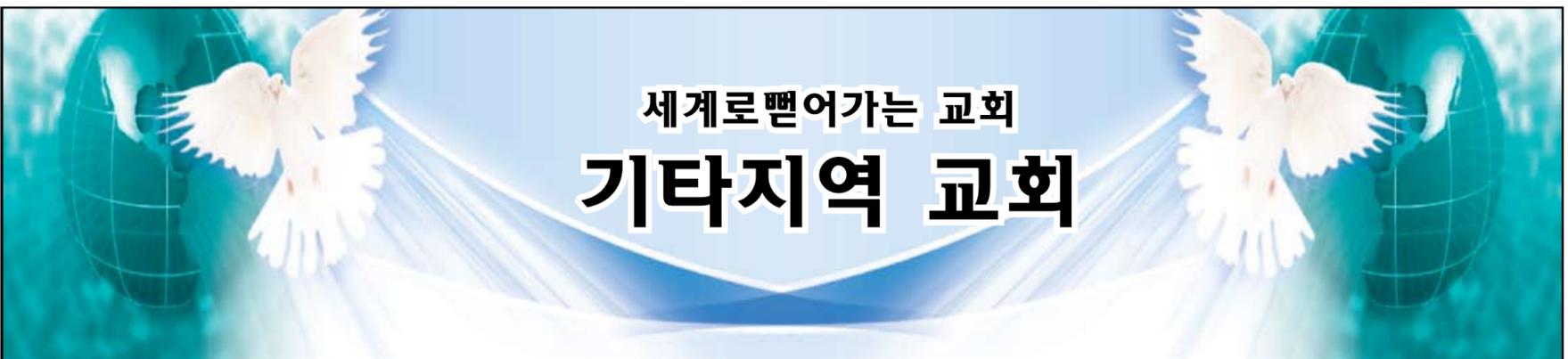
노아가 의를 전하는 선지자, 의의 상속자로 나타난 것은 어떤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첫째, 그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귀담아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참믿음이 시작됩니다. 둘째, 그는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노아처럼 경외심을 가지나 곧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 그는 즉시 순종하고 오래 견디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즉각 산 위에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120년간을 견뎌내며 순종해 그의 식구 모두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우리도 노아처럼 참 구원에 들었다는 경외심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한 의의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토 아브라함의 믿음(히11:8-10)찬442장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리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9).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한 곳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은 순종의 씨앗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엡2:8-9). 둘째, 약속의 땅에서 가정생활에 충실

했습니다. 믿음이란 거창함 속에서보다 작은 단위, 자기 장막에서 그의 식구와 일상생활을 성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골방의 믿음이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성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10). 갈 바를 모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 살았습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산소망을 가집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초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외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아, 유년, 유년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회중: 오전 11:00 청년회중: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l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음악회 준비하는 윤임상 교수

‘변화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

인 △학교를 지역사회에 부각시키고 학생영입 교두보 마련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16일(화) 오후 7시 30분,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윤임상 교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장해 온 월드미션대학교 30년의 감격과 눈물의 고백, 부흥의 역사와 음악으로 연출되어 최정상의 연주자들을 통해 영광의 아리아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윤임상 교수는 개교 20주년 기념음악회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음악회가 계기가 돼 학교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는 저희 음악학과가 탄생한지 4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한인학교 최초로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큰 공연을 기획한 경험도 없었고 오케스트라 지휘가 가능한 학생은 전혀 없었지만 성악전공자들을 비롯해 학생구성원이 좋았습니다. 음악회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윤 교수는 본교 음악학과의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빌드업 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변화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30주년 음악회는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함께 하게 되며 ‘축제와 감사와 희망’이라는 주제의 무대를 만들어가게 된다”며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축제의 무대는 월드미션

장단(지휘 이화여대 음악대학 김영해 교수), LA신포니에타 김용재 지휘자, 파라과이 국립 오케스트라 박종휘 수석 객원 지휘자, 조지현 지휘자가 무대를 장식한다.

△희망의 무대는 월드미션대학교 동문 채영석 작곡가가 개교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창작한 칸타타 ‘요셉’을 통해 학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칸타타 ‘요셉’은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어 변화를 이끌었

동문, 재학생, 교수 함께 만드는 ‘축제와 감사와 희망’ 세 무대 개교20주년 기념음악회 계기 학교발전...교회음악에도 관심요청

대학교 음악과 교수 중심으로 무대로 윤에스터 교수와 황소명 교수가 나서 화려한 무대를 연출한다. 이어 제프 폴레라 교수, 크리스 폴란젤로, 케티 아담스가 나서 피아노와 정통 재즈 음악을 연주한다.

△감사의 무대에는 학교를 졸업한 최정상급의 음악인들이 출연해 환상적인 음악의 향연을 펼치게 된다. 오정근 지휘자, 20명의 프로페셔널 싱어들로 구성된 빠시오네보체 합

단 위대한 힘을 음악으로 전달하며 ‘변화를 리드하는 월드미션 대학교’라는 주제로 마련된 웅장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칸타타 ‘요셉’에서는 소프라노 신선미, 바리톤 장상근, 테너 오우영 목사가 출연할 예정이다.

윤임상 교수는 이번 음악회를 통한 기대와 효과로 △이사진, 후원자,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 월드미션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한 가족임을 확

△사회 각 분야 단체장들을 초청해 학교와 사회의 연결고리 마련 △한인사회 문화예술로 사회를 섬기는 일 부각 △월드미션대학교가 성장해 자력으로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소개했다.

“항상 음악회를 할 때마다 음악을 통해 훌륭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한다 생각한다”며 “규모에 상관없이 어떠한 음악회라도 그 속에서 분명한 메시

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말한 윤임상 교수는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항상 부담이 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동안 학교에서 배움을 가졌던 제자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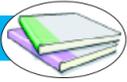
교회지도자들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교회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교회지도자들이 줄어 들고 있는 현실 속에 교회음악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에 대한 관심도도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이러한 악조건 속에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교회음악지도자들을 많이 키우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을 이번 음악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관심 있는 음악인들과 동포들을 자신 있게 초청한다. 많은 참석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임상 교수는 LAKMA(The 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s)의 지휘자로도 널리 알려진 열정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라크마는 보컬 뮤지션들이 중심이 돼서 함께 앙상블을 하고 솔로 연주도 하는 단체로서 시즌이 되면 국제적인 뮤지션들을 함께 모아서 연주회를 열고 있다. 그해 시즌 멤버를 1년에 한 번씩 모집해서 그들과 함께 메이저 연주회를 열고 있는데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자신음악회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중앙대학교와 USC를 졸업하고 아주사 퍼시픽대학교에서 M.Div. 그리고 아메리칸뮤직컨서버토리에서 D.M.A를 받았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213-388-1000)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책 소개



“이민 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저자 원중권 목사



아르헨티나소망교회 원중권 목사가 이민목회 속에서 겪은 애환과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적었던 칼럼을 모아 “이민 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아침향기 290쪽)를 출간했다.

1996년 선교사로 아르헨티나에 첫 발을 디딘 원중권 목사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800km 떨어진 비

자 메르세데스에 정착해 사역하던 중 소망교회에 청빙을 받아 지금까지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서문에서 “이 칼럼집에는 아르헨티나 정치, 경제, 사회의 모습과 한인 이민 성도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다”며 “외롭고 힘든 이민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헌신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

내 인생도 리모델링 될 수 있을까요?’, ‘성경적 품성 개발론’, ‘성경의 반면교사들’, ‘신앙본질의 회복’, ‘리더십을 개발하라’, ‘이민자의 문화와 선교’, ‘절기와 기념일’,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등 총 10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이민자의 어려움을 함께 동감하며 그들에게 다시

어려운 이민 환경에 실망 않고 눈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체험

한 번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 것을 제시하는 위로하는 글이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금 아르헨티나 이민 환경

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을 높이 들어 세계 선교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교사, 디나목회신학원 원장)는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힘든 이민과 나그네의 삶속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한다”며 적극 이 책을 추천했다.

이 외에도 르네빠디자 박사(카이로스 명예이사장), 채은하 박사(한일장신대 신학과 교수), 로센도 살포 목사(그리스도안에서 새생명교회 담임,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전 국회의원) 등도 일독 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책에 관한 문의는 buenoswon@gmail.com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훈련에 초대합니다.

우리들의 친구 무슬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평범한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복음증거를 가로막는 역사, 문화, 신학, 의사소통에 대한 장벽을 없애주며, 통합적 정보와 실제적 이해로 ‘사람 무슬림에게’다가가도록 돕는 무슬림 선교훈련.

강 사 : 김신숙 Biblical Christian Mission 대표
정마태 MIENAAI 공동대표
김기학 MIENAAI 실행위원
박한상 MIENAAI 상임총무

일 시 : 2019년 7월 15-17일(7-10pm)

장 소 :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 남가주사랑의교회 동시강의

참가비 : 40\$(당일접수)

주 관 : Biblical Christian Mission | www.gm.edu

문 의 : 그레이스미션 대학교 (714)525-0088 | e-mail: gm@gm.edu